

# 제4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화상)

## [칼럼] 평행선을 달리는 철도 레일의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9시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8개국 정상 및 SICA 사무총장과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기술 이전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그린·포용적 경제 회복 △지역 협력을 의제로, 개회사-SICA 정상발 모두 발언-의제 발언과 SICA 정상 발언-공동선언문 채택-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제 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한-SICA 회원국 간 제도적 협력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농업, 디지털, 친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단을 여러 회원국에 순차적으로 파견할 예정이고, 상시적 협력기구인 '한-SICA 협력센터'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SICA 회원국의 지속 가능 경제발전 전략과 한국판 뉴딜의 상호 연계를 통해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에 희망한다"며, 지난 3월 모든 당사국에 발표한 한-중미 5개국 FTA는 교역과 투자 증진은 물론 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한국은 개발 격차 극복과 경제·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SICA 지역의 굳건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한-SICA 협력기금을 재조성해 자연재해, 보건위기, 식량안보와 같은 회원국들의 당면과제를 극복하는 데 함께하고, SICA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해 국제 보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을 언급하며 한국은 SICA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CA 정상들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국과 SICA는 가치와 전략을 공유한다"면서, 코로나 방역 지원과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SICA는 한국의 혁신을 배워야 하며,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협력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리세뇨 벨리즈 총리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회복 방안이 필요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활용하는데 집중

해야 한다"면서 혁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전자정부 이니셔티브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 및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은 '한국과 과테말라 수교 60주년'을 상기하며 "한-중미 FTA 5개국에 이어 과테말라도 FTA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코르피소 파나마 대통령은 "한국은 파나마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19 회복을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포용적 사회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친환경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위한 현대화, 기술 발전, 협력을 강조했다.

아비나데르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은 풍력·태양광 발전 능력 증

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중미의 디지털 전환·그린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통점이 있으며, 기술 혁신과 친환경 정책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말했다.

우요아 엘살바도르 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위기에서 엘살바도르를 가장 먼저 지원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양국 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신탁기금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마테로 온두라스 총괄국무조정장관은 "온두라스가 작년에 두 번의 허리케인을 겪었을 때 한국은 주요 협력국으로 큰 도움을 주었고, K-방역 경험을 전수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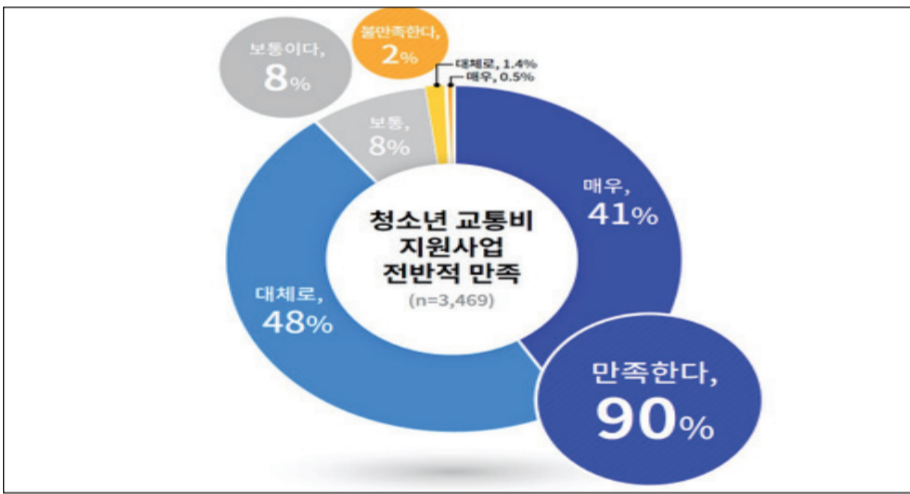
솔로르사노 니카라과 통상장관은 "대한민국은 형제국으로 연대와 우정의 바탕 위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니카라과의 전력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매트릭스를 다변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양측 정상들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의 결과와 새로운 협력 비전을 제시하는 '한-SICA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폐회사'를 통해 한-SICA 양측 간 외교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훈포스 뽀데모스!"(함께라면 할 수 있다, Juntos podemos)로 인사를 마쳤다.

최광수/기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용자 90% 만족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청소년 교통비를 연 12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이용자 10명 중 9명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4~31일 3주간 '2020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용자 3,46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90%로 집계됐다. 이 중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41%였다. 반면 '불만족' 응답은 2%에 불과했다.

세부 항목별 만족도가 높은 건 ▲사업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쉽다(78%) ▲지원 대상으로 만 13~23세 청소년이 적절하다(76%) ▲신청 방법이 편리하다(7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연 12만원의 지원 금액'에 대해 26%가 '불만족' 의견을 제시하고, '만족'은 49%에 그쳤다.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재이용 의향(97%), 주위 추천 의향(96%) 등도 강조했다.

정책의 인식 변화 효과도 확인됐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나와 우리집(이용 대상)에 도움이 되고

(82%)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절감(사회발전)에 기여하며(78%) ▲경기도인 삶의 질을 향상한다(80%)는 데 다수가 동의했다. 아울러 이용자 83%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이용한 후 경기도의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답했으며, 76%는 경기도가 도민을 중심으로 도정을 추진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현재 30일인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금액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을 통해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만 13세 이상 만 23세 이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수혜자 약 39만명 중 1만 5,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진행했다. 이 중 3,469명의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66%p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2019년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신청 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이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정근/기자

## 7월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모임 가능...제주는 6인만 허용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부터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 불편이 트이지만, 당분간은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추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 6명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확정했다.

거리두기 체계는 역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월1~14일) 이행기간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행기간에도 영업제한은 추가로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펍게임장, 풀

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가 이행기간 2주간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 이행기간을 갖는다. 1단계에서는 모든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시와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도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한다. 대구시는 지역 협의체 논의를 거쳐 29일 별도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도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중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해온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한편 당국은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해제

최만식/기자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인 1900년, 일본에 의해 한반도에 처음 철도가 생긴 이래 1945년 광복이 되기까지 약 6,300km의 노선이 설치됐다.

이후 목재 땔감으로 국토의 산천이 험했던 1955년 석탄이 본격 생산되면서 태백선이 개통되었고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면 쿵쿵까지 시커메지던 증기기관은 1967년부터 디젤 기관으로 발전(?)되면서 1974년 정선선까지 이어졌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필자는 방학 때 마다 철안역에서 친척집인 춘양역까지 수시로 무임승차를 시도했고 남은 돈은 짬짬한 군것질의 비상금 역할을 했다.

우연인지 그렇게 지은 죄는 세월이 흘러 2009년부터 철도 사랑에 푹 빠졌고 주간신문(주)서부뉴스를 창간하면서 철도인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코레일의 고객 단장으로 임명되어 나름 철도 발전에 일조할 수 있었다.

처음 주간신문 서부뉴스를 창간하고 인구 65만의 경기도 안산에서 어떻게 하면 대중들의 공감대를 살 수 있는 신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연은 아이디어가 철도였다.

1년이 넘도록 철도에 대한 관심과 집필로 수많은 특집을 보도하면서 느낀 점은 코레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소박한 삶이었다. 정해진 틀 속에 묵묵히 일하면서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으며 박봉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잘한 건 당연하고 어쩌다 탈선하거나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어지없이 언론의 직격탄을 맞았다. 물론 대중교통에는 철도 말고 버스나 기타 항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명절이나 기타 휴가철이면 어지없이 국민들의 가장 큰 다리가 되어 왔다.

총 16년의 지면 중 코레일에 2개 지면을 고정으로 배정하여 실기 시작한 철도 사람은 한번 불이 붙자 온갖 명분으로 이양거리가 생산되는 보물창고였다. 열차 시간표 고정 게재, 시인들과 함께 작품을 전시하여 대합실과 탑승공간을 문화예술의 전시장으로 활용했다.

처음에는 절대 거절하던 관리역장도 필자의 제안에 호감을 표했고 그렇게 시작된 역무 시설의 활용은 명절 때 마다 역 광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개최된 콘서트는 인디언 아파치와 필자의 유머 섞인 사회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역무원들도 한복을 입고 커피를 대접하는가 하면 모처럼 경직된 분위기를 탈출한 철도인들의 표정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새벽을 여는 철도인, 명절 때마다 격무에 시달리는 역무원들의 애로 사항,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간이역을 지켰던 사람들, 철도의 급성장에 하나 둘씩 기계화되면서 사람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철도인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정성은 변함 없었기에 많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이 가능했다.

수 많은 부품으로 제작된 기관차의 하부와 길게 평행선으로 연결된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는 타본 승객들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추억을 선물했다.

필자가 참여하여 기획된 상품 중에도 태백과 분천을 잇는 V트레인과 영주-제천을 잇는 O트레인이 있었고 이후 영동의 와인트레일 등 전국 각 지역의 특산물과 명물을 배경으로 다양한 상품이 속속 출시됐다.

유년기 시절 협곡을 달리던 추억으로 제안된 V트레일은 단전지대에서 공단도시로 이주한 많은 광부들의 희곡본능을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었고 2013년 영주와 제천을 거쳐 강릉을 경유하는 수하여행 코스는 식상한 제주코스 대신 내륙과 동해안의 문화, 관광을 겸하는 코스로 개발됐다.

일명 동녕관광, 이스트 투어라는 상호로 여행사까지 개업하고 2014년 3월 처음으로 경기도 안산에서 모 중학교장의 수락으로 현지답사까지 추진되던 국내 열차여행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모두 물거품이 됐다.

서울·경기의 학생들이 강원도 내륙을 수학여행지로 삼아 탄광지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변천을 공감하게 하려는 꿈은 그렇게 수포로 돌아갔고 팽부어로 다녀왔던 영주 선비촌의 어느 식당 주인과 한 잔의 술로 마감했다.

오늘은 '철도의 날'이다. 한국 최초의 철도 창설일자인 1894년 6월 28일이 기원일이나 약 130년이라는 역사를 가졌다. 총 6,100km 중 전철이 5,000km인데 그 긴 노선을 달리는 철도는 사람이 타는 객차와 화물을 싣는 화차로 구분될 수 있다.

국내 물동량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기차 레일 위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자. 어떤 일인데 절로 되는 건 없으니 오늘 만류이라도 철도인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나누면 어떨까.

주변의 친구나 선·후배, 친척이라도 코레일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고 많다면, 늘 안전하게 잘 근무 하라던가 말이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기밀일 날 말 한마디면 감사를 느끼고 그렇게 느낀 감사는 다시 들고 돌아 훈훈한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시골 간이역에서 동근 정차표지판을 주고받는 풍경이 없어졌지만 좁은 열차 복도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오징어·땅콩을 팔던 흥이회 판매원의 구수한 멘트는 기억에 남아있다.

짧은 시간 정차를 틈타 김이 모락 모락 나는 우동을 게 눈 감추듯 한 끼 해치우던 시절, 열차 복도에 둘러앉아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러도 같이 박수를 쳐 주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 열차는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달릴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

항공기 타지 않고도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철도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남긴다.

평생을 달려도 만날 수 없는 열차 레일이 한쪽이 없으면 남은 한쪽도 무용지물이듯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교훈의 상징으로 여겨보자.

덕암/김근식

## 달서구 송해공원의 밤, 소원꽃 빛으로 밝히다



###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 '오세훈표 자가검사키트'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자가검사키트, 방역성과 저조 및 부실한 행정처리... 단순히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코로나 자가검사키트가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 강행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확진자를 발견하고 지역 사회 감염전파를 막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서울형 상생방역'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역당국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까지 써가며 강행한 자가검사키트는 오 시장이

주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고사하고 당초 발표와는 다르게 콜센터·물류센터·학교 등 시범사업으로 끝났으며, 실제 확진된 사례는 12만5천여 건 가운데 4건에 그쳤다. 자가검사키트 집행과정의 부실한 행정처리 문제도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 17일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했으나 계약은 5월 25일에 이루어졌다. 계약일 이전에 이미 납품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또한 정확성이 완전하지 않아 우려를 산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예산으로 활용할 만큼 긴급한 사유였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을 위해 5월 16일 예산을 신청한 후, 운용계획 심의를 5월 18일부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한 경우 사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23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시장실을 상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은 결국 뚜렷한 성과 없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그쳤다"면서 "정책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이

어야 하지만,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 사용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오는 7월에 방역지침이 완화되어도 절대 안심할 수 없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전과 같은 보여주기식 방역대책으로는 코로나 방역도, 서민 경제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진정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 이홍일 광주광역시의원, 광주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 확립이 필요

광주광역시의회는 25일 '광주형 자치경찰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가정·학교 폭력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여 관장하는 제도이다. 광주에서도 지난 5월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초기 문제점을 최소화 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좌장을 맡은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광주형 자치경찰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광주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자치경찰이 주민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시의회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인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최선우 교수는 자치경찰제도의 특징과 운영문제 분석을 통해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실질적 지방분권화를 통한 한국형자치경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광주전남연구원 김대성 선임위원은 광주형 자치경찰제를 강조하며 "자치경찰은 주민밀착형 치안활동, 경찰권한의 증진,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통해 도시정체성에 부합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조기선 (광주CBS 보도국장), 김계욱 (광주전남연구원 전문연구원), 양우천 (자치경찰국 정책과장)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홍일 의원)는 오는 6월 30일 자치경찰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시범운영 추진 결과와 7월 본격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덕용기자

### 국회 교육문화포럼,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한국형 스포츠클럽 성공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교육문화포럼(공동대표 안민석·최강욱)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을 기념하여 한국형 스포츠클럽 성공 방안을 논의하는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국회 교육문화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해 정재용 KBS 스포츠국장, 정윤재 문제부 체육진흥과장, 이민표 학교체육진흥회 사무처장, 김종윤 대한축구협회 대회혁신 프로젝트팀 리더, 김영규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회장, 심찬구 스포터즈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은 온라인(zoom) 화상회의에 참여해 자유토론을 진행했고, 유튜브 채널(안민석TV)을 통해 생중계했다. 황희 문제부 장관, 박정 국회 문체위 간사,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前스포츠혁신위원장)는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형 스포츠클럽 성공과 전문체육·생활체육이 공존하는 스포츠클럽 중심의 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재용 국장은 "스포츠 개혁을 위해서는 학교체육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진형 스포츠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스포츠 종목별 현실에 맞게 개혁할 수 있도록 종목별 자율형

디비전리그, 주말리그 공모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윤재 과장은 "스포츠클럽 법제화로 일반 동호회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이 되어 시설 이용 및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이 마련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민표 학교체육진흥회 사무처장은 "스포츠클럽법 핵심이 체육시설의 공급인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스포츠 시설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종윤 리더도 지자체 및 정부 지원을 통한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주장하며 디비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김영규 회장은 국내 체육계의 현황을 짚어보며 공공스포츠클럽이 수행할 수 있는 체육사업을 클럽으로 전격 이관하고 시군구체육회는 관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심찬구 대표는 스포츠 수요에 입각한 다양한 스포츠클럽의 성

공사례를 수렴해 새로운 모델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스포츠 수요의 방향성과 철학을 정한다는 전제하에 스포츠클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스포츠클럽 법제화를 실현시킨 안민석 의원은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스포츠혁신위가 권고한 개혁과제로 모든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정책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스포츠계의 메달 지상주의, 국가주의, 엘리트 중심주의 극복과 한국 스포츠의 혁신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회에서 16년간 스포츠클럽 도입을 주장했다"며 "한국형 스포츠클럽이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공부하는 학생선수·운동하는 일반학생이라는 학교체육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국민 누구나 10분 거리에서 체육시설·지도자·프로그램을 접하는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 조상호 의원, 서울시, 13억 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과정 회계부정 의심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6월 21일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업을 추진하며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계약서도 없이 물건부터 납품받는 등 회계부정까지 의심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총 13억 4천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지난 5월 17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런데 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개의 자가검사키트 업체 중 특정업체를 선정해 계약 하는 과정에서 13억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가 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비교견적서가 엉터리로 작성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다. 계약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업체 간 비교견적 작성일자가 일주일 이상 시간차가 있는가 하면 선정업체가 아닌 경쟁업체의 견적서는 자가검사키트 제공업체가 아닌 유통업체가 작성했고 세부적인 단가도 제대로 명시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심사도 하지 않고 계약서도 없이 물건부터 납품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납품을 완료한 5월 14일부터 열흘이 넘게 지난 5월 25일에서야 사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광수기자

### 영암 삼호산단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지정'... 김원이 의원 그간의 노력 빛 받

김원이 의원(목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산업부에서 발표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영암 삼호산단의 신규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기업이 집적화한 산업단지 등 지역을 지정해, 기업 간 공동 활용시설 구축,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신규 지정된 영암 삼호산단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대형 조선소 내 집적화 되어 있는 용접·표면처리 관련 뿌리기업 63개사에 기술 고도화, 근로환경 개선 등 경쟁력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8일, 영암

삼호산단 내 뿌리산업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김 의원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뿌리산업 전문기업을 확대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 및 협의체 구성 등 삼호산단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지정됐다"면서 "목포·영암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지정과 함께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삼호산단의 용접·표면처리 산업은 조선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기술 분야"라며, "뿌리기업에 도움이 되겠다" 말했다. 김동일기자

더샵 오산엘리포레

# 충남도민과 함께한 자치권 수호 6년사 기념행사 개최

충남도는 25일 당진시청 해나무홀에서 도민과 함께한 자치권 수호 6년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양승조 충남지사, 김명선 도의회 의장, 당진시장, 지역국회의원, 충남도계 및 당진시장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영상 시청, 감사패 수여, 서예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당진대책위원들은 앞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2,020일 간 촛불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1,415일간 헌법재판소 1인 시위 및 581일간 대법원 1인 피켓시위를 주도하며 도민의 당진항 매립지 회복을 위한 열의를 양재판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충청남도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당위성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이날 도지사와 당진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양 지사는 “당진대책위의 활동은 내 고장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주인의식, 나아가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으로 일궈낸 감동적인 역사”라며 “소송이 매듭지어지기까지 긴 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일처럼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10여 년간 당진대책위를 이끌어온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내 땅을 뺏으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비록 안타까운 결과를 얻었지만, 당진 역사의 큰 의미가 있는 투쟁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도와 당진시는 올해 하반기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 추진을 준비하며, 매립지 관



할권 소송 종료 후 당진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당진항 국가공용부두 개발, 해양·문화·레저시설 확충 등

충남의 주장이 2022년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담기도록 할 계획이다.

김원호기자

# 광명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정책 제안

광명시는 지난 24일 기후위기·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한 영상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이번 영상회의는 지난 6월 16일 개최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회원도시와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각 지방정부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명시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명확히 하여 지방정부가 탄소중립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분권 차원의 권한 강화로 시민과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당진시는 에너지 전환의 집중 필요성, 보령시는 새로운 탄소에너지 대체 에너지, 대덕구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

지나한 등 각 회원도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시민을 기후 의병으로 육성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생활 실천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와 지역탄소중립 이행 정책토론회, 탄소중립 국제세미나에서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발표 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광명시는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함께 그린 광명-쿨루프 사업, 광명Bee 에너지학교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탄소배출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순희기자

# 안승남 구리시장, 6.25전쟁 71주년 맞아 ‘참전용사에 깊은 감사’ 전해

## “국가안보와 나라 사랑 정신 일깨우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조



구리시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호국 영령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7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6.25 참전 유공자들의 평균연령이 91세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안승남 구리시장,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 시·도의원과 국가유공자 90여 명이 함께했

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 기록화 사업 ‘잠들지 않는 이야기 3번째’에 참여했던 6.25 참전자회 이수열 참전용사 이야기 낭독을 시작으로 목숨을 담보로 이 나라를 지켜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농협은행 구리시지부(지부장 유재호)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홍삼절편 선물을 준비 해

전달했다.

한기장 6.25 참전자회 구리시지회장은 “팬데믹 코로나19 여파로 이웃 시에서는 이런 행사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리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유공자 분들을 먼저 배려하는 행사를 마련해 줘 정말 고맙다.”며 연신 관계자들의 손을 잡았다.

안승남 시장은 “우리 아버님도 6.25전쟁 참전용사이며,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안 계셨다면 후손인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록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이지만 참전 영웅들을 가슴 깊이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잠들지 않는 이야기’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46명의 국가유공자와 구리시 출신 독립운동가 후손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책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관내 학교 및 시립도서관에 배포했다.

최만식기자

# 조학수 양주시 부시장, 33년 공직생활 아름다운 마침표... 명예로운 퇴임

## 이시종 지사, 옥천통합복지센터 찾아 격려



조학수 양주시 부시장이 25일 명예퇴임 간담회를 갖고 33년간 공직생활을 2021년 6월 30일부로 마무리한다.

조 부시장은 1988년 연천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1990년 경기도로 전입, 2009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이래 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장, 북육정소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등 도정의 주요 현안업무를 담당하며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어 뛰어난 기획력과 섬세한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아 2017년 6월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해 포천시 부시장, 평생교육국장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양주시 부시장으로 재임해왔다.

특히 매사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업무에 대한 남다른 열정,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동료 직원들로부터 귀감이 돼 왔으며 이와 같은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등 장관 표창 2회, 도지사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했다.

조 부시장은 양주시에서 부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오랜 시간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다져진 탁월한 행정력과 위기 대응력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견인하는 핵심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다.

취임과 동시에 발생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역관리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계층별·사업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는 등 코로나 위기국면 타개와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집중해왔으며 코로나19 선별진료

정동희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4일 오후 옥천통합복지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시종 지사는 24일 오후 옥천통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옥천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프랑스’에서 현장설명을 듣고 4층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의 친절한 수세미뜨개사업단과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옥천분소, 행복나눔마켓 등을 찾아 직원과 참여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시종 지사는 “여기서 어르신과 영유아,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본 것 같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재종 군수는 “옥천통합복지센터 개소이후 이용자 호응이 높다.”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진일보 확장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지역의 복지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옥천통합복지센터’는 6월말 현재 6개 복지기관이 입주해 1일 최대 8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군은 그 동안 임대 사용하는 등산재난 복지서비스 수탁기관을 한 곳으로 모아 한편, 옥천군은 사무실을 임대 사용하는 등산재난 복지서비스 수탁기관을 한 곳으로 모아 이용자 중심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부지 2천 311㎡, 연면적 4천 182㎡의 지상 7층 건물을 매입해 총 105억의 사업비로 ‘옥천통합복지센터’를 지난 4월 2일 개소했다.

최만식기자

# 송석준 의원, “중부내륙철도 112억 역명 재심의 강력 촉구 및 112억명칭 결정 철회 집회 참여”

중부내륙철도 112억 역명 심의위원회 결과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112억명칭 결정 철회 및 재심의 필요를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25일 오전 장호원철도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와 이천시민들이 대전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을 찾아 112억명칭 결정 철회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송석준 의원을 포함하여 엄태준 이천시장, 정성화 비대위원장, 허원 경기도의원, 김인영 도의원, 김하식 이천시의원, 서하원 시의원, 조인희 시의원을 비롯 전덕환 장호원위원장협의회장, 송영환 장호원농협조합장, 유재웅 경기동부과수농협조합장, 신성희 장호원로타리클럽 회장, 정재창 장호원주민자치위원장 및 이천시민 100여 명이 참석(단, 코로나19 방역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50명 미만으로 철회운영)하여 역명심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위법·부당한 112억명 결정을 규탄했다.

집회 도중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시설본부장, 일반철도처장, 시설계획처장, 건축설비처장장 한국철도공사 역운영처장 등 관계자와 송석준 의원, 엄태준 이천시장, 허원 도의원, 김인영 도의원, 김하식 시의원, 서하원 시의원, 조인희 시

의원 및 정성화 장호원 비대위원장 및 전덕환 장호원위원장협의회장(장호원 비대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국가철도공단 측에 역명심의위원회의 112억명 심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고 재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시행한 ‘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 결정결과 알람’공문(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1977, 2021.6.24.) 중 이천~문경 선 112억명 심의결과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력히 규탄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한 112억명 재심의 필요성을 강력 요청했다.

송석준 의원은 112억명 재심의의 필요성에 대해 “장호원은 예전부터 이천 남쪽부터 음성 북쪽을 아우르던 전통 지방이자, 국민들과 인근 주민들도 장호원을 112억 임지의 대표지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명 심의과정에서 충북 측 이해관계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112억명 소재지 표기에서 이천시 장호원 부분을 누락한 공문 수발신이 있었으며, 112억이 이천시 장호원과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걸쳐 있어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정본부와 함께 수도권광역본부의 의견을 들어야 했음에도 수도권광역본부의 의견은 누락시킨 점, 장호원 비대위와 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사이 112억명을 장호원감곡으로 한다는 과거 합의 사항 등 중요 심사자료가 역명심의위원회 회의 시 누락된 점 등 심각한 절차적 위법성과 부당성이 확인된 만큼 즉시 역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공명정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 결정결과 알람’공문 시행에 맞서, 국토교통부에도 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의 112억명 재심의의 필요성 및 관련 후속절차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최광수기자



# 경상북도의회, ‘제3회 의정 아카데미’ 실시

경북도의회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2021 의정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스피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폐회 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특강은 박해담 스포츠·심리연구소 대표를 초청하여 좋은 발음, 스피치 핵심요소, 미디어 스피치 능력을 올리는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고유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강에 이은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는 2021년 연초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1년 의회 교육연수 실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세기기자

# 영등포구, '안심홈 10종세트'로 여성안전지킨다

영등포구가 여성 1인가구와 한부모 모자 가정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관문 보조키, 창문잠금장치 등 안심홈 10종 세트를 지원한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이혼, 별거, 미혼부모의 발생 증가에 따라 한부모 가정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 1인가구를 타겟으로 한 주거침입, 스토킹 등의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영등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상대적 안전취약계층인 여성 1인가구와 법정 모자 가정에 안전 보조장치를 지원해 범죄발생 불안을 해소하고 여성이 행복한 친화도시 조성에 힘쓰는 방침이다.

지원품목은 ▲벨이 울릴 때 문 밖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도어벨, ▲창문잠금장치 및 현관문 보조키, ▲택배 송장에 찍힌 개인정보를 보이지 않게 지워주는 택배송장지우개, ▲외부에서 문 열림이 감지되면 자동 알림을 주는 스마트 도어, ▲주거 침입이

발생할 경우 모션 센서가 감지한 후 사이렌을 울리는 스마트 모션센서와 ▲스마트 사이렌, ▲스마트 허브와 ▲호신용 스프레이, ▲스마트 도어락 등, 총 10가지로 구성된다. 단, 스마트 도어락은 나머지 9종의 세트를 선택할 경우 지원품목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전월세보증금 또는 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의 영등포 거주 여성 1인가구 및 법정 한부모 모자가구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구 홈페이지 또는 영등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ydffc@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7월 중 신청자의 주거형태와 안전 취약 여부를 고려해 총 100개 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10월 22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복지지원과 또는 영등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여성과 청소년의 심야



시간 안전 귀가를 돕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귀갓길 운영, 위기상황 시 신속 대피를 위한 안심지킴이집 지정, 택배기사와의 대면 없이 물품을 찾아갈 수 있는 여성안심택배함,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등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안심홈

10종 세트가 여성 1인가구의 생명과 안전을 든든히 지켜주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민 누구나 존중받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안전과 치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 금천구, 20년뒤 금천의 미래! 주민과 함께 논하다

금천구가 6월 25일 시흥1동주민센터에서 시작으로 11월까지 10개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1 도시정책 공유를 위한 도시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도시학교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의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변화하는 도시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개요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3080+ 주택공급 방안 △공공근대개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 소개 등 정보검색 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학교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및 3080+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2부는 '공공근대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일정'에 대해 공유한다.



이번 2021 도시학교는 별도의 참여 신청 없이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안내문의 각 동별 일정을 참고해 당일 현장참여하면 된다.

한편, 구는 주민과 도시계획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5년 '찾아가는 도시학교'를 시작으로 2016년 '도시학교 기웃기웃', 2017년 ~2019년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학교'를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금천구의 20년 미래를 담은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수립

해 금천구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재정비하고 이를 주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기 위해 도시학교를 재개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의 최대속원사업인 공공근대 이전 및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전체 주민과 공유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번 도시학교를 열게 됐다"며, "금천의 미래를 위해 이번 도시학교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 서초구, 서울 자치구 유일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서울 서초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관내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한다.

구는 2017년에 서울시 최초로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신설하였으며, 2019년에는 기존 30만원이던 위문금을 3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021년 현재 서울시 내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서초구가 유일하다.

참전유공자 위문금의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로 1년에 한 번 참전기념일에 지급한다. 6·25 참전유공자는 매년 6월에,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매년 9월에 위문금이 지급된다. 참전유공자 위문금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현재 서초구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편, 구는 보훈정책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거주기간 조건(1년 이상 거주)을 폐지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국가보훈대상자에 추가하였다. 이외에도 사망유족금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문금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의 선양을 위해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여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 마포구, '마포쏘핑라이브' 3탄으로 휴가철 '캠린이' 공략

마포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지원하는 '마포쏘핑라이브(일명:마쏘라)' 세 번째 방송을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한다

이번 마쏘라에서는 지역 내 재래시장인 망원동 월드캠시장에서 구 매한 식재료(고기 등)로 구성된 캠핑 먹거리 세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좀 더 많은 주민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좋아하고 필요로 할 만한 제품을 마쏘라 3탄의 판매용품으로 준비했다.

특히 이번 방송은 지역 내 인기 캠핑장인 마포 노을캠핑장에서 방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드론을 활용해 실시간 촬영하는 캠핑장 현장을 함께 선보여 더욱 생생한 라이브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방송에는 제품 소개 뿐 아니라 캠린이(캠핑초보자: 캠핑+어린이)를 위한 캠핑 팁과 제품을 판매하는 월드캠시장의 '수요장터' 및 '월(月)드크데이' 이벤트 소개, 노을캠핑장 이용방법 등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마포구 구정홍보 방송인 마포TV를 통해 제작·방영되고 있는 '마쏘라'는 기존에 오프라인 시장

중심으로 한정해 판매되던 지역 내 생산품들을 상호교류형 생방송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해 눈길을 끈다.

지난 4월과 5월 두 번의 방송을 통해 마포공예센터에 입점한 공예품들을 선보인 바 있으며, 첫 방송 이후에는 마포공예센터 쇼핑몰의 매출이 30%가량 증가하는 성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와 연계한 새우젓 판매, 소상공인 점포 소개, 재래시장 특집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마쏘라를 기획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난 '마쏘라' 첫 방송에 출연해 함께해 보니, 방송을 통해 마포구 지역 상품의 홍보를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마쏘라'를 통한 판매제품을 새롭게 다양하게 기획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 우리동네 하천으로 떠나는 생태여행!

황규식기자



# 용산구, 대입 수시전형 대비 3단계 프로그램 운영

서울 용산구가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대비 프로그램을 3단계로 준비했다.

우선 7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6회차로 나눠 '1:1 진학상담' 과정을 운영한다. 대상은 지역 내 고등학교 3학년생 42명이다. 용산구민을 우선 선발한다.

강사는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원단 소속 교사 7명이다. 이들은 학생별 생활기록부, 모의고사 성적 등을 분석, 화상회의시스템(Zoom)을 통해 1인당 40분씩 상담을 진행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또 8월에는 2차에 걸쳐 '1:1 자기소개서(자소서) 작성 지도' 과정을 이어간다. 운영일시는 8월 14일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20분(1차), 8월 21일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20분(2차)이며 1·2차 모두 참여해야 한다.

대상은 관내 고3학생 30명. 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원단 소속 교사 5명이 줌을 통해 1인당 40분씩 개별로 지도한다. 학생이 미리 작성한 자소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비교,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알려주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2차에 걸쳐 1:1 지도가 이뤄지는 만큼 수정된 자소서를 재검토, 보완점을 다시 알려줄 수 있다"며 "학생들이 방향성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9~10월에는 '1:1 맞춤형 모의면접' 과정을 진행한다. 대상은 관내 고3학생 40명이며 일정, 내용은 추후 제공한다.

진학상담, 자소서 지도 과정 참여

를 원하는 이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구 교육종합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무료다.

지난 상반기에도 구는 '2022-2023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1:1 맞춤형 진학상담' 과정을 비대면 형태로 운영, 학생·학부모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성장형 용산구청장은 "대학입시는 정보력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바뀌는 입시제도에 맞춰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학 설계를 도움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식기자

# 종로구, 종로 어린이 동요축제 막 오른다 '29일 온라인 생중계'

종로구는 오는 6월 29일 14:30부터 종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종로 어린이 동요축제'를 실시간 생중계한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아동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동요를 매개로 지역주민 모두가 하나 되는 기회를 갖고자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에서 지난 5월 사전 참가신청을 한 관내 11개 초등학교 28팀 42명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열린다.

참가 부문은 독창과 5인 이하 중창이며 ▲개회식 ▲1·2부 동요경연 ▲수상자 발표 순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참가자들을 위한 퀴즈 이벤트, 마술쇼 등의 부대행사와 함께 구민 투표로 인기상 수상자를 선정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믿음을 갖고 아동친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특히, 구 도심의 노후한 환경과 높은 주거비 등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탈하며 생겨난 초고령화 및 저출생 현상 등에 대응하고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에 매진한 점이 눈에 띈다.

대표적 예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회색빌딩이 빼곡히 들어선 도심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창신동 '산마루놀이터', 삼정·송인공원 내 '유아숲 체험장' 등을 만들었다. 이밖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린이를 위한 전문공연장 '아이들극장'을 해화동에 개관한 바 있다.

김영중 구정장은 "코로나19로 학교도 전처럼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을 어린이들이 그간 열심히 연습한 노래솜씨를 뽐내며 즐거운 추억

을 쌓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아동의 꿈과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 화성시, K-반도체 전략도시가 땀 흘려 '미래형 스마트벨트' 구축 맞손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K-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화성시를 포함, 용인, 성남, 수원, 안성, 이천, 평택 7개 지자체가 손을 잡고 '미래형 스마트벨트' 구축에 나섰다.

화성시는 24일 용인시청에서 7개 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미래형 스마트벨트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형 스마트벨트는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 남부 권역에 소재한 K-반도체 전략도시들이 정책과 조력, 마스터플랜을 공동추진하는 지방정부 연합체, 즉 '지방정부의 플랫폼'이다.

이들은 우선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자체 전력 공급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산단 내 수소발전소,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전기 에너지 등을 적극 활용한 수소BRT, 수소트램 등 대중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경기남부권역 대기질 개선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역 간 상생을 위한 공동조례도 신설된다.

기존에 건설하도급업체 선정 시 지역 내 업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스마트벨트 내 기업까지 확대해 이들 지자체의 기업들이 차선 순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연합으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친환경 미래형 도시계획의 공동 수립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리적, 재정적, 산업별 특성을 존중하면서 반도체산업의 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린 모빌리티 추구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함



께 마련하고 중장기 도시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스마트벨트는 K-반도체를 이끄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의 산실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K-반도체 발전전략이 스마트벨트를 통해 구

현될 수 있도록 연합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각 지자체의 유튜브를 통해 중계됐으며, 식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공동세미나'가 개최됐다.

김남주기자

#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본격화...12개 시군 19개 쉼터 대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2021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 19곳을 선정하고,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은 실직, 재해 등의 사유로 갈 곳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임시 거주 시설인 '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총 1억3,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15개 외국인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쉼터 19곳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시흥 1곳, 부천 4곳, 안산 4곳, 남양주 1곳, 광주 2곳, 용인 1곳, 고양 1곳, 군포 1곳, 수원

1곳, 김포 1곳, 하남 1곳, 안성 1곳 총 12개 시군 소재 19곳의 쉼터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관, 벽지, 칩규류 등 생활공간 개선과 더불어, 방범창, 노후전기 설비 등 각종 안전시설을 보수하게 된다. 코로나 19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용품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쉼터 1곳 당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개선비용이 지원될 방침이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외국인노동자들의 사고, 노숙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쉼터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 광명시, 살기 좋은 주거 문화 조성 '공동주택 입주 대표단과 소통의 장' 마련

## 71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광명시가 더 살기 좋은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71개 공동주택 거주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시는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 동안 광명·일직동, 하안동, 철산동, 소하동 권역별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의견을 듣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열린 23일 간담회 첫 날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권역 및 광명역세권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의 건의사항과 각종 의견을 듣고 질문사항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광명시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 층간소음 분쟁 조정 요령, 공동주택관련 부서별 관련 사업 등을 안내했다. 특히 10.10.10 소동행사, 작은도서관 운영 등을 안내하고 공동체문화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방음벽 설치, 공개공지 내



복지 및 시설물 관리, 아파트 정문 X자 보행신호 신설, 새빛공원 약취개선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 회장단은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건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향후 이 같은 간담회가 자주 추진되길 바라며, 광명시 발전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극 협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28일에는 하안권역 간담회가

전순희기자

# 하남시, 하남시사회복지공동조직위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 개최

## 은평구, 백신접종자에게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이용료 면제

하남시는 사회복지공동조직위원회와 지난 23일 시정 상황실에서 '하남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호 하남시장을 비롯해 조직위 각 기관 대표인 이주봉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장, 유희선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장, 민복기 하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과 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조직위는 하남시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처우개선안을 선정해 시에 제안했다.

개선안은 ▲시간외수당 인정 확대 ▲처우개선비 대상자 확대 ▲특수근무수당 대상자 확대 ▲복지포인트 인상 및 대상자 확대 ▲장기근속 휴가제 신설 ▲건강검진비 지원 ▲유급병가제 도입 ▲본인 및 자녀학자금 지원 ▲종합감사 시행주기 완화 ▲법인전입금 폐지 및 인하 등 10건이다.

조직위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안을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지침으로 규정화해, 법인과 시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시가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처우개선안이 사회복지 종

사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하며, 이를 통해 하남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상호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과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정책에 반영하겠으며, 개선안 중 예산이 수반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은평구는 코로나19 1차 백신 완료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 중 하나로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이용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붕붕이"는 언제나 부르면 붐~붕~ 달려간다는 의미의 캐릭터로 장난감 대여와 반납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원하는 날짜에 집에서 대여와 반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장난감나라 회원이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장난감나라 "북한산레미안점"에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배송료는 3,000원(대여+반납), 2,500원(대여 또는 반납)으로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 완료 회원에게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백신 완료 증명서 확인을 통해 월 2회 배송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면제를 받고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영유아, 2자녀 이상(둘째 임신부 포함)대상도 백신 완료 증명서 확인 시 백신 접종인센티브로 추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상승기자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 시흥시대야신천권 원도심주차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푼다

### 오는 8월부터 문화마을로 일원 9개동 지역에서 시범실시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원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한다.

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문화마을로 일원 9개동 지역 내 423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야·신천권 원도심 전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해 센터는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지난해 7월부터 2주간 대야·신천권 주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0%로 나타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10월에

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와 광주시를 방문해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들었고, 12월에는 관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센터는 제반사항을 마련한 후, 제도 적용 기간과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리환경적으로 부담이 적고, 주민공동체가 활발한 지역인 문화마을로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문화마을로 주변의 경우 야간이나 공휴일에 무료 개방하는 공영주차장이 2곳 있고, 공공기관부설주차장과 민간시설을 주민들에게 '나눔주차장'으로 개방하기 위해 협의 중인 시설들도 여러 곳 있어 시범지역으로 적합한 여건을 갖고 있다.

6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반적인 시



행계획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신청자 접수와 선정에 들어간다.

우선주차 차량은 주차요금(1만 5,000원~2만원)을 선납한 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해당 면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해당 면에 대한 불법주차 차량은 시에서 마을관리기업과 협업체 관리한다. 특히 골목길 상권 활성화를 위

해 상가 앞 주차면은 '상가주 우선주차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으로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갈등도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내년 대야·신천권 원도심 전체로 확대(약 2,100면)할 경우, 연간 약 4억 원의 세수증대와 지역주민 고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수원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공공시설 이용하면 무료 할인 혜택

수원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이들에게 공공시설을 무료로 입장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예방접종자는 수원화성·화성행궁(7월 1일부터), 수원박물관·수원광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을 12월까지 무료입장할 수 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6월 29일~7월 18일 열리는 기획전 '다시 시작하는 남북함의 이행! 약속'은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8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관람료를 50% 할인해준다.

수원SK아트리움 제작·기획 공연(6월 21일~12월), 수원시립예술단 정기·기획 공연(7~10월)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은 9월부터 12월까지 수강료를 50% 할인해주고, 수원FC 홈경기 일반석 입장료는 7월 31일부터 1000원 할인(1회 한정)해 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많은 분이 예방접종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다

만 예방접종을 받은 분이라도 밀폐·밀집·밀접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정근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자 혜택 목록**

**수원시 혜택**

- 수원화성·화성행궁 무료 입장 (7월~12월)
- 수원박물관·수원광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 무료 입장 (5월~12월)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기획전 50% 할인 (8.17~11.7) 기획전 무료 입장 (6.29~7.18)
- 수원SK아트리움 제작·기획 공연 관람료 50% 할인 (6.21~12월)
- 수원시립예술단 정기·기획 공연 관람료 50% 할인 (7월~10월)
- 수원FC 홈경기 일반석 입장료 1회 한정 1,000원 (7.31~무기한)
-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할인 (9월~12월)

**전 국민 혜택**

- 사적 모임, 직계 가족 모임, 상견례 인원 제한 단계적 완화
- 장구 종교활동·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주기적 진단검사 제외
- 노인복지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요양) 운영 체계
- 국립공공시설 (공연, 과학관, 휴양림 등) 입장·관람료 면제 또는 할인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여타의 방역수칙 준수에 유의합니다.

수원시 시민센터 ☎ 1899-3300

# 양주시, 2021년 제2분기 당정협의회 개최

양주시는 24일 2층 상황실에서 '2021년 제2분기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과 정덕영 시의회의장, 박재만·박태희 도의원, 시의원 등 코로나19 정부 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시는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6대 숙원사업, 7대 역점사업, 42대 핵심과제 등 24만 시민과 함께 이루어낸 3년간의 주요 시정성과와 지역 현안사업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시정에 대한 깊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역 내 코로나 발생 및 검사 현황을 비롯해 백신 보유량, 예방접종 실적 등을 공유하고 향후 감염병 관리 추진계획을 제시하며 상시적 공공보건으로 인프라 확충과 체계적인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뜻을 모았다.

또한 GTX-C노선 건설, 전철 7호선 연장, 교외선 운행 재개 등 2021년 국도비 확보 주요성과와 내년도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2022년 재정 전망을 함께 확인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핵심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당·정간 긴밀한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착수해 지난 18일 최종보고회를 마친 '양주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로컬푸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코로나19 극복과 주요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며 "경기 북부 거점도시의 위상에 맞는 교통 인프라와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인구 규모에 맞는 체계적인 푸드플랜 수립으로 지역 내 먹거리 순환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민생안정과 일상 회복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푸드플랜 최종 연구용역에 따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로컬푸드 직매장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우선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정동희기자

# 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대부도 문화활동 펼쳐

안산시는 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으로 '대부도 여행'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일에 치러진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체험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해 감성순화를 돕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날 방역키트(손소독제, KF94 마스크)를 제공받았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유리섬박물관 관람 및 승마체험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한편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 건전한 여가활동 탐색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예, 가죽공예, 스포츠, 보컬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최정부기자



# 고양시, KAIST 정재승 교수 비대면 특강 진행

고양시의 대표 청년공간 '청취다방'에서 오는 6월 29일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와 함께하는 '명사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명사특강'은 청취다방에서 연 4회, 청년들의 의견과 트렌드를 반영한 유명 인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특강이다.

이번 특강은 '열두 발자국'의 저자이자 카이스트(KAIST) 바이오·뇌공학 학과 정재승 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청취다방은 지난 4월 방문자를 대상으로 '청취다방에 초청하고 싶은 강사'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과학' 부분에서 정재승교수가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청취다방은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정재승 교수의 강연을 개설하게 됐다.

특강 신청은 청취다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취다방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놓은 상황에서 청년들은 장기간 혼란을 겪고

있다. 미래를 대비하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고양시 청년센터 청취다방** × **명사초청 특강 정재승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 청년들의 미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대상 :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일시 : 6월 29일 (화) 16시 - 18시10분  
장소 : 비대면 ZOOM  
신청 : 청취다방 홈페이지  
문의 : 031-979-6911

정재승 교수  
현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융합정책연구소 학부장  
2009년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 선정 차세대 글로벌 리더  
2010년 한국과학문화상 수상  
2019년 대한민국 근영포장 수상  
저서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2001), 열두 발자국 (2018) 등

**남원시**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을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약속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 영양군, '심영순 빛깔찬 고춧가루' 직거래사업 MOU 체결

영양고추유통공사는 6월 24일 (주)기름과 영양군청에서 "심영순 빛깔찬 고춧가루 직거래 사업 MOU 체결"을 했다. 이날 영양군에서는 오도창 영양군수, 장영호 영양군의회의장, 경북도청(외교통상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경북 수출기업협회 배영일 회장, 영양고추유통공사 관계자와 (주)기름 임·직원 20명이 참석을 했다.

이번 MOU체결식에 영양군은 50년 역사를 연구한 대가로서 국내 한식문화 발전과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방승인 "심영순 요리연구가"(한식대접 심사위원,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가 출연 하였으며, "심영순 빛깔찬 고춧가루" 생산공장 시설견학과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기름은 중국 추저우에 운영 중인 고급한정식 매장에 영양군에서 생산되는 "심영순 빛깔찬 고춧가루"를 입점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을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여 영양군의 우수 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주력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축사를 통해 영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과 공급, 농식품의 가공과 유통 등 포괄적인 부분에서 사업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어 생산농가의 소득보장과 나아가 영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시는 심영순 요리연구가, (주)기름 임직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 하였으며

(주)기름은 좋은 품질과 안전한 먹거리를 산지직거래 방식을 통해 고객에게 공급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간 상생협력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최현동 영양고추유통공사 사장은 MOU체결을 통해 고품질 명품화된 고추생산에 전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사 설립 이후 최초로 중국시장에 수출을 하는 유망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감성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직거래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 경산시, 지역청년 문화 활성화 성과 공유의 장 마련

## '청년희망 Y-STAR 프로젝트' 서포터즈 발대식 및 성과보고회 개최

경산시는 24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챔버홀에서 청년희망 Y-STAR 프로젝트 서포터즈 발대식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 Y-STAR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서포터즈(A&D/인디/SNS)와 괴짜문화예술 기획자 양성과정의 성과를 보고하고 새로 선발된 3기 서포터즈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는 ▲개회식 ▲2기 서포터즈 해단식 ▲3기 서포터즈 출범식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부대행사로 서포터즈들의 성과를 행사장 로비에 전시하였으며 영남대 정문에서는 지역의 청년 예술가와 지역상가발전회 등 유관기관들이 함께 "청판(청년 POP-UP) 폼파켓"이라는 이름으로 플래시마켓이 진행되었다.

사업단은 2년에 걸쳐 총 47명의 서포터즈를 배출하였으며 서포터즈들은 SNS 채널 및 유튜브 채널 제작과 기획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새로 선발

된 3기 서포터즈는 디자인 관련 전공자, 소셜 미디어 활용 능력 우수자 등 총 22명으로 올해 12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청년들의 문화가 위축될까 우려스러웠지만 Y-STAR 서포터즈의 그간의 노력에 고마움을 느끼며, 청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년문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희망 Y-STAR 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 경북 청년 행복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도비 약 43억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지역청년 문화 거점공간 구축과 청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간 원데이 클래스, 청년예술가 작품 전시, 유튜브 채널 운영, 버스킹 공연, 플래시마켓 개최 등을 통해 지역민과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 영천시 新중년 문화리더! 문화도시를 꿈꾸며 동아리 활동 시작

영천시는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신중년동아리(별별인생) 지원사업'을 6월 말부터 시행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에 만 41세 이상 65세 이하로 구성된 문화예술분야의 신중년동아리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공모하고 지난달 선정 심사를 했다.

선정 심사에 참가한 18개 신중년동아리 단체는 팀별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 후, 동아리 사업계획 컨설팅과 보조사업자로서의 적합성 검토를 심사 받았으며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이달부터 본격 시작한다.

문화예술 신중년동아리 지원사업은 공모 유형별로 문화예술형 및 세대소통형은 1,000만원, 학습형은 500만원으로 동아리 활동 및 공연·전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다.

신중년동아리 단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어르신들의 못생긴 별난 손 굵손이 되는 벽화 활동', '카메라



를 매개로 우리마을 흔적 찾기',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합창 영상 만들기', '신중년의 살아온 이야기를 돌아보며 직접 연극 만들기', '마을이야기 발굴 활동', '금호강 강길 위에 인문학'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고 일상이 문화 예술이 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문화예술 신중년동아리 활동을 통해 신중년 스스로 문화생산을 하는 문화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자기만족

을 위해 시작한 취미생활 영역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영천시는 '문화예술 신중년동아리 지원사업'에 이어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폭을 더욱 넓혀가기 위해 '문화예술 아동·청소년동아리(별별주니어)지원사업' 운영 보조사업자 모집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고할 계획이다.

한반식/기자

# 경북도 이철우도지사, 백선엽장군 1주기 추모행사 참석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故) 백선엽 장군(1920~2020년)의 1주기를 맞아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개최된 추모행사에 참석했다.

국가원로회의와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가 공동주관하고 백선엽장군 추모위원회 대구경북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열렸다.

백선엽 장군은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면서 북한의 침략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다부동 전투'의 주역으로 전쟁 당시 "내가 앞장 서서 싸우겠다. 만약 내가 후퇴하면 나를 먼저 쏘라"며 도망치는 장병들을 막았다고 알려져 있고, 다부동 전투 승리 덕분에 국군과 UN(유엔)군이 낙동강에 교두보를 마련해 이를 기반으로 인천상륙작전도 꾀할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 이상훈, 권영해 공동의장, 송영근·한규성 백선엽장군 추모위원회 공동대표 등 행사관계 인사들을 비롯하여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백선기 철곡군수 등 대구·경북기관장들과 6·25전쟁 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모사 △6.25전쟁, 백선엽장군 추모영상 상영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6.25전쟁의 역사, 국군과 유엔군, 백선엽 장군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자"며 결의를 다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늘 자신보다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먼저 생각하셨던 백선엽 장군님의 삶과 정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 대구시교육청, 학교 공간의 변신을 꿈꾼다

## 학교 안 틈새공간에 상상력을 더한 예술공감터 사업 진행

대구시교육청은 예술감성을 일상으로 누리는 '예술공감터' 구축 사업 대상학교 38교를 선정했다.

예술공감터 구축사업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예술 감성을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중앙현관이나 복도, 연결통로 등 다양한 틈새공간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채로운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36교 구축에 이어 올해도 진행 중이다.

대구시교육청은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최종 38교(초 14, 중 13, 고 9, 특 2)를 선정했으며, 사업 내용에 따라 교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총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남덕초, 구지중, 성당중의 경우는 예술공감터 구축 과정과 학생들의 활용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유튜브, 학교예술교육포털에 공유하여 누구나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감터도 구축한

다.

지난 16일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지난해 예술공감터 구축 및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구축을 앞두고 있는 학교 담당자들의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었다.

이점형 생활문화과장은 "예산대비 만족도가 높고 교육적 효과가 검증된 예술공감터는, 학교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구축하여, 함께 사용하는 학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해 계단을 변화시킨 동도초등학교의 꿈나래실, 성광중학교의 '성광예술실습소 아트팸팸', 필로티로 들어 올려진 건물1층 야외공간에 무대를 만든 비슬고 등 참신한 공간변신이 인상 깊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어 멋진 공간으로의 변신을 올해도 기대하며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2021 포항시 친환경농업인 연찬회 개최

## 친환경농법 실천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보급에 기여 기대



(사)경북친환경농업인포항시연합회(회장 배영호)는 24일 포항시 농업인 교육 복지관에서 '2021 포항시 친환경농업인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가의 교류를 돕고, 친환경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며 친환경농법 실천으로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도·시의회 의원 및 농업관련 유관

기관·단체장, 친환경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각종 시책교육과 함께 최신 친환경농업 기술 등 정보 교류의 장을 가졌다.

특히,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영남대 식품경제외식학과 이상호 교수의 강의에 이어 경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의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특강이 참석한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었다.

포항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 및 농가수는 경북도내 1~2위를 차지

할 만큼 앞서가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산물생산 장려금, 무농약지속 지불금 지원 등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안전먹거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포항지역의 친환경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고,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춰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더욱 확대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 부산근현대역사관, 시민 참여형 에코 박물관으로 재탄생!

2003년부터 운영 중인 현 부산근대역사관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15분 도시' 비전에 걸맞는 문화공간 시설로 새롭게 태어난다.

부산시는 2022년 '원도심 문화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할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을 위하여 2003년 7월부터 운영중인 현 부산근대역사관이 6월 29일부터 휴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사업은 일제강점기 서양풍 건축물인 근대역사관(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미문화원)과 한국 1세대 건축물(이천승 설계)인 구 한국은행부산본부를 연계하여 건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개항에서부터 피란수도, 산업화, 민주화 시기를 지내온 부산 사람, 부산 문화, 동시대 부산 사람들의 생활을 주제로 한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도 별도로 추진한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간에도 역사관 이용이 가능한 휴게 시설 운영,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기능을 위한 운영 방안도 연구 운영 중에 있으며, 6월 22일 부산근

현대역사관 운영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격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새로 탄생하는 부산근현대역사관은 유물전시 위주의 전통적인 박물관에서 탈피하여 임시수도정부청사 등 인근 문화재와 한성1918 등 원도심 문화시설과 연계하는 '시민 참여형 에코 박물관'으로 조성해 박형준 시장의 15분 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 근현대 관련 전문 도서와 기록을 수집, 제공하는 라키비움 공간을 확보하는 등 원도심 전역의 근현대 역사를 이어주는 '역사문화시설'의 앵커 역할을 할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을 계기로 침체된 원도심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복합공간 기능을 통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근대역사관 휴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및 근대역사관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거나 부산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영기기자



### 진주시, 6·25전쟁 71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 수여

진주시는 25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6·25전쟁 71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식'을 갖고 9명의 국가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식에는 9명의 보훈 유공자 외에도 6·25전쟁에서 공적을 세우고도 서훈이 누락된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자 국방부와 육군에서 추진 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사업 대상자인 故제재호 하사(7경비대대)와 故박명중 상병(5사단)의 화랑무공훈장 전수식도 함께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유공자 표창식은

로 축소 진행된 이번 6·25전쟁 기념행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6·25전쟁 용사와 보훈단체 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의 희생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하루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 보훈 유공자분들을 많이 모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성평등한사회로 갈수 있는 구조적인개혁 필요

경상남도는 24일 간부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특강과 성평등 조직문화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3급 이상 간부 공무원, 보좌관, 직속기관장이 함께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장도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변신원 교수는 '젠더 전환기의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지 화두를 던지며 동화책에 담긴 성차별 요소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각종 사례를 통해 비뚤어진 성의식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리고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성평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끊임없이 주변 사물과 사건에 대해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 전체가 성평

등한 사회가 되려면 교육에 대한 혁신을 포함한 구조적인 개혁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성평등 문화로 바뀌어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강 이후에는 참석자 모두가 '동등한 기회 동등한 대우', '존중하는 직장', '성희롱·성폭력 OUT!', '일·생활 균형' 등의 실천 과제가 담긴 팻말을 들고 숭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성희롱 방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전 직원 대상 성평등 조직문화 자가진단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개정과 간부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광용기자

###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미송새마을금고, 업무협약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와 미송새마을금고는 24일 새마을 화관에서 '건강한 공동체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와 미송새마을금고는 앞으로 건강한 공동체 회복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생명운동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 류경완 경상남도의원, 이주홍 남해군의회 의장, 군의원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하여 양 단체를 격려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군의 번영을 위해 모든 일에 숭선수범하는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와 미송새마을금고에 감사함을 표하는 한편, "기후위기 극복과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일에 항상 남해군과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정철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와 미송새마을금고의 협력으로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자"며 "오랜 형제의 우정을 기념하면서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화 미송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미송새마을금고가 지역에서 서민금융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가 추진하는 이웃 돌봄 지역봉사활동 및 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밝혔다.새마을운

### 북구,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로 가로수길 조성

울산 북구는 지역 대표 휴식처인 달천동 천마산 편백산림욕장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로 일원에 가로수길을 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2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편백산림욕장 진입로 1km 구간에는 높이 4m의 편백나무 250그루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로 1.3km 구간에는 높이 4m의 메타세쿼이아 152그루와 1.5m의 동백나무 285그루를 혼합해 심었다.

편백산림욕장은 한국관광공사 언택트 관광지 100선,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에 각각 선정되면서 앞으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기대되는 곳으로, 진입로에 가로수가 없어 다소 삭막한 모습이었던 진입로가 조성으로 진입로에서 편백숲을 미리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로에는 메타세쿼이아를 심어 일자로 쪽 뺨은 도로의 특성을 살렸다. 1.3km의 이국적인 메타세쿼이아 길을 지나면 6km의 자연호수 산책로를 만날 수 있다. 메타세쿼이아 사이에는 동백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꽃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는 이번 가로수길 조성에 앞서 주민 의견을 듣는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며, 전문가 자문도 받아 지역 특색에 맞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편백나무는 심은 후 초기 활착이 까다로워 가로수로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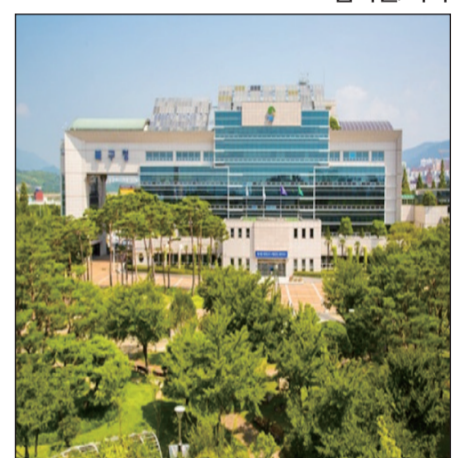
는 사례가 드물지만 북구는 편백산림욕장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편백나무를 심기로 하고 초기 생육 관리에 힘쓰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천마산 편백산림욕장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북구의 대표적 휴식처이자 관광자원임에도 진입로 정비가 부족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진입로 가로수 조성으로 편백산림욕장과 호수공원이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 받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구는 올해에 이어 내내에도 가로수길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 7억6천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북구 관계자는 "북구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길과 도시숲 조성을 통해 도심지 녹지를 꾸준히 확장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 전북도, '귀리'생산농업인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전북도는 '귀리'생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직불금을 7월 16일까지 농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귀리'로 확정 고시함에 따라 도는 시·군 전달 회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청 홍보 활동과 신청·접수를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대상품목 생산 농업인들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은 지급대상 품목인 귀리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0년도에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다

신청 방법은 귀리 생산농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7월 16일까지 신청·접수가 완료

된 후 7~8월 서면·현장 조사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에 지원금 규모 및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10~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자격 요건이 되는 농업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신속한 직불금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승일/기자



### 완주군, 올 상반기 각종 공모사업 응모에서 대박 난 까닭은?

올 상반기 중앙부처·전북도 공모에 45건 선정돼 456억 국·도비 확보

완주군이 사업 실 취지에 맞게 응모하는 전략적 접근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에만 40여 건의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돼 450억 원 이상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대풍(大豊)을 거뒀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전북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올 상반기 중에 선정된 완주군 사업은 총 45건에 국·도비 확보액만 무려 4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각종 공모에서 완주군이 국·도비 445억 원(78건)을 확보했음을 감안할 때, 올 상반기 중 성적이 이미 작년 한해의 수치를 상회하는 대성과를 거둔 셈이다

완주군은 산자부의 '수소융합 검사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응모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후보지로 낙점돼 국비 210억 원 등 외부재원 308억 원을 확보했으며, '사용 후 연료 전지 기반구축 및 제조지원 사업'에 응모해 국비 1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수소 인프라 강화에 잇따라 성공했다

완주군은 또 과기부의 'AI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응모해 지난 5월 최종 선정돼 국비 38억 원을 확보했으며, 국토부의 '취약계층 이동성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도 선정돼 3억5,200만 원의 국비와 도비 3,000만 원을 손에 쥐게 됐다

김광수/기자

### 지역경제 이끈 정읍시 소재 2개 기업,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 '선정'

(주)디에스앤피,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경영개선 보조금 3천만원 '확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읍시에 소재한 (주)디에스앤피(대표 이종태)와 (주)우리비앤비(대표 박상협)가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에 따르면 (주)디에스앤피는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우수중소기업인상'은 매년 지역경제의 주춧돌이 된 도내 중소 제조업체 대표와 기업지원 공헌도가 높은 경제단체 대표에 수여하는 상이다

(주)디에스앤피는 구조용 철강 제품 C형강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매출

신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디에스앤피는 3천만 원의 경영개선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며, 공로패와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또 '성장 사다리 육성사업' 등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사업에 참여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각종 금융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주)우리비앤비(대표 박상협)는 '2021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에서 스타기업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육성사업'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의지와

## 남원시, 신정대로 선개통으로 통행환경 개선

신정대로 개설공사 대로구간 선개통으로 주민 편의 도모

남원시는 신정대로에 대하여 우선 선개통(6월 25일) 통한 원활한 통행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도심지 주요 대로인 교통대로 및 신정대로를 급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정대로는 남원시가지와 주변 외곽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로써 남원역 등 주요시설을 이용하는 중요한 도로이다

대로가 개통되면 남원시 서쪽 주민들 및 순창, 곡성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남원으로 오는 진입이 쉬워지고 반복사지 인근 협소도로를 이용하지 않아 사고예방을 높여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남출/기자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신정대로 개설공사는 반복사지 인근에 위치하여 문화재청과 협의 등 행정절차 기간이 길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과 시, 각 기관들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추가적인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이후 중로 및 소로구간은 7월까지 완료하여 도심지 도로정비개선과 주변의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며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시장(이한주)은 "도심지 도로개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남원시의 발전 및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시 관광경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 경제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위기가구 버팀목 '익산형 긴급생계' 호응

나눔·곳간 5개월만에 이용객 9천명 돌파, 4억5천만원 상당 지원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나눔·기부곳간'과 '익산형 긴급생계지원'이 위기가구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협력으로 추진되는 나눔·기부곳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르며 복지 선도 지자체로 부상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월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에 다이로움 나눔곳간을 개장하며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더 많은 위기가구가 적절한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나눔곳간은 개장 5개월 만에 9천274명에게 4억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무료로 지원하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 곳간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에게는 직접 가정까지 배달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탄력적인 운영으로 대기 기간을 줄여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시민, 단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과 성금으로 운영되는 나눔곳간은 지난 5개월 동안 290곳에서 5억6천만원 상당이 기부돼 지역사회 나눔과 연대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나눔곳간의 호응은 다양한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선수/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 6.25 전쟁기념일 맞아 유공자에게 '감사함' 전달

권익현 부안군수는 6월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24일 6.25참전유공자회 부안군지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로운 삶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비록 코로나19의 상황속에 행사 진행을 하진 못하였지만 지속가능한 보훈사업을 통해 보훈가족 복지와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현재 960여 명의 대상자에게 보훈예우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와 협력해 2019년부터 국가유공자 가구에 명패를 달아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김현태/기자

### 전춘성 군수, 국가예산 확보 광폭 행보

상반기 동안, 2020년 1년간 신규 국가예산 확보액 크게 넘어선 19건 890억 확보 성과

전춘성 진안군수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품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

전 군수는 올해 들어 농촌협약사업비로 426억원(국비 300억, 도·군비 등 126억), 계획공모형 관광자원개발사업 138억원, 진안군 바다비체육센터 건립 89억원 등 굵직굵직한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2022년도 진안군 국가예산 확보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사업비 426억원을 비롯해 19건 890억원이다

이러한 성과는 전 군수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만 해도 그는 용담호 광역상수도 전지역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수자원공사, 환경부 등을 수차

레 방문한데 이어 지역현안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 20여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공식적인 방문 이외에도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는 물론 정치권과 수시로 만나 지역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기에도 전 군수는 국가예산 목표액 700억원 확보를 목표로 계획이다

유종철·이희철/기자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주)우리비앤비는 의약품 원료인 조해파린나트륨과 케이싱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최대 5년간 수출지원과 기술혁신 지원, 연차별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기업인 간담회와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내 기업 애로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하은/기자

중 공모사업 선정, 기업의 고충과 규제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5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지역경제를 이끌어 주신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지역 내 기업들이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 “국가유공자유족 예우, 소홀함 없도록 지원”

##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곡성 사과 우박피해 현장 살피

### ‘신속한 조사피해 최소화’ 당부...곡성구례광양 70ha 잠정 집계

## 이용섭 시장, 8개 보훈단체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4일 광주 보훈회관에서 이은형 상이군경회 광주지부장 등 보훈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마련한 특별주간(6월24~30일)의 첫 번째 행사다. 특히 이 기간에 보훈단체별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보훈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이군경회 광주시지부, 전몰군경유족회 광주시지부, 전몰군경미망인회 광주시지부, 무공수훈자회 광주시지부, 고엽제전우회 광주시지부, 특수임무유공자회 광주시지부, 6·25참전유공자회 광주시지부, 월남전참전전우회 광주시지부 등 8개 단체가 참여해 ▲상근임직원 보훈업무수당 지원 ▲잡전·보훈명예수당 지급범위 확대 ▲국가유공자 장례의 전 선양사업 등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호국보훈정신 함양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시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

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 이어 임성훈 광주지방보훈청장과 함께 6·25참전유공자 자택과 유족의 집을 잇따라 방문해 위로했다.

먼저 6·25 참전유공자 정달호(93)옹의 서구 마락동 자택을 찾아 위로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정달호 옹은 1950년 22세의 나이로 입대해 육군 2사단 포병대 근무 중 무공을 인정받아 1952년 4월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며, 1953년 중부 화천지구 전투에서 아군 진지로 날아든 적의 포탄 파편에 큰 부상을 입어 1급 중상자가 된 후 1954년 상사로 제대했다.

또 이 시장은 6·25 참전유공자인 고성관식 해병대 소령의 가족이 거주하



는 남구 임암동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하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혔다.

성관식 소령은 1928년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전신인 수원농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952년 7월 해병대 소위로 입관한 후 장단 사천강가 전투에서 대규모 중공군과 맞서 싸워 임진강 일대 아군 주저항선의 핵심 요충지를 확보하는 공을 세웠다.

6·25전쟁 후에도 해병대 항공대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나 1958년

9월 비행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31세에 순직해 1계급 특진과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국가보훈처는 빛나는 투혼으로 무적 해병의 신화를 쓴 성관식 소령을 2020년 4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할 바 있다.

이용섭 시장은 30일에는 광복회 광주광역시지부와 광주·전남재향군인회, 백범기념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덕윤/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4일 곡성 오크면 사과농장 우박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피고, 농가를 위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비를 동반한 1~2cm 크기의 우박이 내려 곡성읍, 고달면, 오크면 일대에 사과, 배, 고추, 옥수수 등 과수, 밭작물 38ha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사과 피해 현장을 둘러본 후 “사과 열매가 한창 커지는 시기에 이런 피해를 입어 안타깝다”

며 “피해조사를 빠짐없이 하고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내린 우박으로 전남지역에서는 곡성을 비롯해 구례, 광양 등에서 총 70ha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남도는 다음주까지 피해 농가별 정밀조사를 하고, 피해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제에 나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영민/기자



# 여수시 휴켄스(주), 지역인재채용 ‘여수시민가점제’ 동참

# 함평 손불면, 출생아 상품권 지원사업 실시

# 강진군, 쌀 생산량 평년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 24일 시청서 협약...지역과 상생발전으로 청년실업 해소, 인구 증가 ‘기대’

휴켄스(주)가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여수국가산단 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동참 기업이 9곳으로 늘었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 시청실에서 ‘휴켄스(주) 인력채용 여수시민가점제 적용 협약식’이 열렸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신진용 휴켄스(주)대표이사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기관의 상생발전과 여수지역 청년실업 해소, 인구 증가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휴켄스(주)는 신규 인력채용부터 여수시민가점제를 적용하며, 지역인재 채용률 증진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여수시는 많은 산단 기업이 가점제 협약에 참여하도록 도로·하천·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가점제 실시 기업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신진용 대표이사는 “휴켄스(주)는

여수시와 함께 성장해왔다”면서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여수시민채용가점제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오봉 시장은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한 대열에 합류해 주신 휴켄스(주)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역 인재들의 취업 기회가 넓어지고 인구증가 효과를 거둘 여수시민

가점제에 더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7년부터 GS칼텍스(주), 남해화학(주), 한화솔루션(주), 금호석유화학(주), 금호미쓰이화학(주), 금호피앤비화학(주), 금호폴리켄(주), 삼남석유화학(주) 8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채용인원 563명 중 325명을 여수시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남출/기자



전남 함평군 손불면은 손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손불면 출생아 함평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손불면에 출생신고를 한 11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 원의 함평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손불면 특화사업이다.

손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흥재 위원이 해당 사업비를 기부함에 따라 협의체 회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했다.

이흥재 위원은 앞서 함평군에 출생신고한 가정에 대해 1백만 원을 지원하도록 1억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손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이날까지 손불면에 출생신고를 마친 7가구에 상품권을 전달했으며, 남은 4가구에 대해서는 출생 신고 시 지원할 예정이다.

백형갑 손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기석/기자

강진군은 금년도 쌀 생산량을 10a 당 500kg을 목표(평년 495kg)로 정하고, 쌀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 보급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급으로 긴 장마와 낮은 일조량, 출수기 전후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해 평년 생산량 대비 약 19%(통계청 발표)가 감소해 농업인 소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재해 등의 수량감소 요인을 극복하여 쌀 생산량을 평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올해 정부 보급종을 전년 대비 141%(158톤)까지 확대 공급했다.

특히, 보급종 중 재해 안정성이 높은 새재무 품종은 66톤을 공급해 전남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으며, 새재무 재배면적도 계약재배 면적을 포함해 총 4,000ha로 늘렸다.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하여 현장 기술지도도 강화한다. 드문 모심기(50주/3.3㎡) 기술을 확대 보급해 생산비 절감은 물론 도복 및 병해충으로부터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벼 품종별 적기 이앙과 수확 등에 대한 사전 홍보를 강화하

고, 병해충 예찰을 실시해 적기 방제할 수 있도록 농업인상담소와 현장 기술지원단을 통한 선제적 대응체제도 구축해 나간다.

김춘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발표한 ‘전남 쌀 5대 전략 프로젝트’와 연계해 고품질 쌀 생산을 목표로 농업인 단체와 함께 노력하고, 쌀 생산량을 끌어올려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羅州

에너지밸리 성공을 뒷받침할 **에너지 4대특구 완성**

-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 강소연구 개발특구

#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깁니다’ 6.25전쟁 제71주년 기념식 개최

##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 및 유족에 존경과 감사 드림

강원도와 화천군이 주최하는 6.25전쟁 71주년 기념식이 25일 화천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깁니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기념식에는 도내 참전용사를 비롯해 최문순 도지사,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한 내·외빈 2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는 FMC(美전직 연방의원협회) 방한단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방한단은 8명의 미국 전직상하원의원(김창준, 더그 존스, 밥 굿렛, 마이크 비숍, 존 파스, 바트 고든, 브라

이언 베어드, 피트 와이클린)과 그 가족으로 구성, 6.25전쟁 제7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후, 칠성전망대를 방문했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들은 방역절차를 필수로 거쳐 입장, 10시 30분부터 6.25전쟁 기념영상 시청 및 헌화분향, 헌시 낭독, 창작 공연이 진행되었고 안보의식 고취 및 참전용사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자 10명에게 도지사 및 화천군수의 표창장이 전달됐다. 이어 기념식의 마지막은 세계평

화의 종 타종으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마무리 되었다. 세계평화의 종은 세계 각국의 분쟁 지역에서 수집된 탄피들을 모아 만든 종으로 평화, 생명,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와 유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에 맞는 예우를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 원주시 역사박물관, 2021년 제10회 원주 역사그림 공모전 개최

##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작품 접수 / 10월 중 시상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원주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지역사에 대한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10회 원주 역사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원주 역사(구석기~근대)·민속문화·설화·인물·역사 박물관 전시 자료 등이며, 공모분야는 수채화·세밀화·파스 텔화·유화·조감도 등 일러스트다. 공모대상은 원주시 관내 유치원(7세)·초·중·고등학생이며, 공모규모는 유치원에서 초등 저학년은 8절지, 초등 고학년에서 고등학생은 4절지이다. 작품 및 응모신청서는 9월 1일(수)부터 9월 30일(목)까지 원주시 역사박물관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10월 중에 심사를 거쳐 입상작을 시상할 계획이다. 1인당 1작품씩 접수 가능하며, 입상 작품은 원주시에 저작권을 귀속하여 지역 홍보 책자 등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원주 역사그림 공모전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원주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제10회 원주시역사박물관 역사그림 공모전**

- 출품기간: 2021년 9월 1일 ~ 9월 30일(18시 까지)
- 출품자격: 원주시 관내 유치원(7세), 초·중·고등학생
- 작품규격: 유치원(7세)~초등3학년 이하 - 8절, 초등4학년 이상~고등학생 - 4절
- 공모부문: 수채화, 유화 등 그림 형식이면 모두 가능하며, 사진은 불가함
- 작품내용: 원주의 역사(구석기~근대), 민속문화, 설화, 역사인물, 박물관 등 원주관련 내용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응모신청서와 작품 접수 (휴관일: 매우 필요일, 공휴일 다름)
- 접수처: 원주시역사박물관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 ☎ 033-737-4371)

원주 | 원주시 | 원주시역사박물관

# 홍천군,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첫 샘물터’ 관광지 조성 박차

## 국도56호선 인접 탐방로 입구에 50면 주차장과 공원, 화장실 설치

홍천강의 발원지인 ‘미약골 첫 샘물터’가 탐방로를 갖춘 관광지로 조성된다. 홍천 9경 중 3경인 미약골은 맑고 깨끗한 용천수가 샘솟아 400리를 흐르는 홍천강의 발원지이다. 때문에 해마다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으나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2.4km에 이르는 암석폭포~발원지 구간은 탐방로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방문객들은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21억원의 예산을 투입, 1차 사업으로 국도 56호선과 인접한 탐방로 입구 인근 6,645㎡의 부지를 확보해 승용차와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50면과 공원, 이동식 화장실 1곳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또 신설주차장에서 미약골테마공원까지 1.5km 구간에 대한 탐방로 조성도 마무리하고 있다. 1차 사업은 6월 25일 공판된다. 군은 2차 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7월 1일부터 암석폭포~발원지 2.4km 구간에 데크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해 올해 연말 완공할 계획이다.

이 구간 탐방로는 샘물터 보호를 위해 방문객이 샘물터까지 들어가지 않고 데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친환경 공법으로 시공될 예정이다. 2차 사업까지 모두 완공되면 국도 56호선 신설주차장에서 발원지까지 5.5km 전 구간의 탐방로가 개통,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샘물터 주변에는 홍천강의 발원지임을 알리는 표지석도 설치할 예정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홍천강 400리의 발원지인 미약골 첫 샘물터를 새로운 힐링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약골 탐방로 조성이 완료되면 더 많은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홍천강 발원지 후보 4곳을 대상으로 올해 초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량이 가장 풍부하고 물길을 따라 늪지가 형성된 서석면 생곡리 산 41-2번지 일대를 홍천강 발원지로 결정했다.

정동희/기자



# 강원도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PCR 선제적 검사 실시

강원도교육청은 28일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학교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선제적 PCR 검사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춘천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특히 무증상 확진자의 증가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큼에 따라 2~3주 동안 춘천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제적 PCR 검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학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규모에 따라 1~2명(1팀 3명)으로 이루어진 이동검사팀이 방문해 학생과 교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선제 검사이므로 확진자 발생 후 검사와는 달리 학교는 정상 운영된다.

검사결과 확진자 확인 시 도교육청 및 관할보건소에 즉시 통보되고, 학교검사자 전체에 대한 검사결과와 다음날 일괄 통보된다. 도교육청 박옥녀 안전담당관은 “무증상 확진자의 증가로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의 불안감이 많다”며, “학교로 찾아가는 선제적 진단검사와 학교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홍천군, 서울 도봉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홍천군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농촌체험 기회 제공, 지역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도농상생 협력 등 경제교류를 시작한다. 나아가 양 자치단체는 행정,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적극 교류할 예정이다. 홍천군은 6월 25일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울 도봉구와 양 도시 간 상호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다.

자매결연 협정식은 코로나19로 인해 허필홍 홍천군수와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양 지방의회 의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협정식은 양 도시 홍보영상 시청, 인사말 및 축사,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사진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공동발전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문화·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양 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1992년)·은평구(2019년)·양천구(2020년), 경기도 성남시(1998년), 인천광역시 부평구(2005년) 등 국내 5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축제 상호 방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선 7기 들어서는 세 번째로 도봉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정동희/기자

# 한국형 그린뉴딜 모범사례로써 국내 첫 주민참여형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준공식 개최

강원도와 태백시, 한국동서발전, 코로플글로벌, 동성,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의 준공식이 24일 개최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원동마을 통장, 지역 주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 태백시장, 태백시의장과 참여주체인도, 한국동서발전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번에 준공되는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는 1단계 사업으로 태백시 원동 소재 가덕산에 3.6MW급 12기, 총 43.2MW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었으며, 사업비 1,250억원이 투입되었다.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SPC 설립을 통해 지자체와 발전사, 민간기업이 지분을 출자하고, 국내 최초로 지역주민이 마을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번 1단계 사업에 강원도는 34%, 태백시는 10% 지분 출자를 하였고,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장학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태백시민은 채권 참여를 통해 20년간 고정된 이자수익을 지급받게 된다. 본 사업은 지역의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선진국형 사업 모델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주민참여형 확산 모델이 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정부의 그린뉴딜 성공사례로써 선정된 바 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 준공으로 도내 전체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461

MW이며 이는 전국 1위 규모이다. 또한 태백지역의 풍력발전은 172.8MW로 그 동안 도내에서 가장 많았던 평창지역의 158.9MW를 넘어설게 된다. 이번에 준공된 43.2MW에서 생산하는 예상 전력량은 연간 113,530MWh이며, 월평균 350kWh를 소비하는 가구 기준, 2만7천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3단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600억, 21MW(4.2MW\*5기) 규모로 올해 하반기에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탄소중립 2040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도내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상생하는 참여형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 택시타고 안전하게 귀가...춘천 최초 픽업서비스 모델

## 자녀의 안전한 하굣길과 맞닿이 가구 지원을 위한 춘천 최초 사례

자녀의 안전한 하굣길을 돕는 픽업서비스 모델이 춘천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춘천어깨동무사회적협동조합과 희망택시협동조합이 연대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픽업서비스를 지원하는 ‘희망픽업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픽업서비스는 택시기사가 직접 자녀를 학교에서 돌봄 장소까지 픽업하는 서비스로 해당 방식은 춘천에서 첫 시도다. 특히 이 서비스는 예산과 비용없이 춘천어깨동무사회적협동조합과 희망택시협동조합이 공익 실현에 뜻을 모은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6월 7일부터 6명의 택시기사가 금산초등학교, 호반초등학교, 금병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명의 학생을 방과 후 공강이 있는 퇴계동으로 픽업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7월 2일까지 진행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공유회, 지역 내 초등돌봄 관련 기관 및 단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초등방과 후 픽업모델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조정자 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초등돌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협동조합 연대를 기반으로 돌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과제들을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춘천어깨동무사회적협동조합은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된 초등돌봄 방과후 협동조합 모델발굴사업을 통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엄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택시협동조합은 지난해 강원도에서 최초로 설립된 택시협동조합이다.

최재은/기자

# 태백시,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준공식 개최

태백시는 24일 강원도와 태백시가 출자하고 한국동서발전, 코오플글로벌, 동성이 함께 참여한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류태호 태백시장, 김전수 태백시의회 의장, 김형원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찬영 원동마을 주민대표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하여 국내 육상풍력 1호이자 주민참여형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준공식을 축하했다. 총사업비 1,250억원을 투자 태백시 원동 가덕산 인근에 설치된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는 3.6MW급 총 12기가 설치되었으며 총 발전량은 43.2MW급으로 약 17,000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발전규모를 자랑한다. 이미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태백산풍력발전단지 개발 운영을 통해 경험이 풍부한 태백시는 가덕산 풍력발전단지에 최근 25억원을 출자했으며, 발생하는 배당수익을 통해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에

너지 빈곤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현재 건설계획 중인 가덕산 풍력발전 2단계 사업의 향후 추진 예정인 3단계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출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금번에 준공되는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외에도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 및 관련 기업 유치 등에 2025년까지 약 2,720억 원을 투자, 과거 석탄산업의 성지에서 그린수소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투자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태백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는 총 7개소에 173MW급으로 도내 신재생에너지공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 중인 약 10개소의 풍력발전 단지가 조성되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도시로 명성을 알리게 된다.

최만식/기자

# 충북도립대 신축 학생생활관 기공식, 오는 2023년 5월 완공 목표

## 공립대 최대규모... '학생 위한 복합문화생활공간 조성'

충북도립대학교 신축 학생생활관이 오는 20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기공식을 갖고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는 24일 오후 3시경 옥천군 옥천읍에 위치한 충북도립대학교 운동장에서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북도립대학교가 주관하고 충북개발공사가 주최하는 이번 기공식 행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김재종 옥천군수, 임만재 옥천군의회 의장, 박영용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는 20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충북도립대학교 신축 학생생활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381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건립된다.

신축 학생생활관은 198실 393명이 수용 가능하도록 지어질 예정이

며, 도서관과 식당, 다목적 강당 등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도 조성된다

이를 통해 500명 이상의 상주인구가 유입돼 옥천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립대는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고려한 주간 정규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방과 후 활동 등 통합형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기숙형(RC)대학으로 전환하는 등 명품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 학생생활관을 활용한 주민참여축제 프로그램 또한 개발·제공하며, 도서관과 체육단련실, 회의실 등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지역-대학 상생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충북도립대학교는 지역의 산업인력 수요를 책임지는



직업교육대학으로 나날히 발전하고 있다"며 "충북도립대학교 신축 학생생활관을 충북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을 공립대 최대규모로 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병영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은 "신축 학생생활관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와 열악한 학습환경을 개선하여, 대학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등 충북도립대학교가

명실상부한 충청권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충청북도와 옥천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결실을 맺은 사업이니 만큼,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을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갖춘 '365일 머물고 싶은 복합문화생활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대전시교육청, 2021년 상반기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 개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6월 24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2021년 상반기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대전·세종·충북·충남교육청)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충청권 혁신교육의 공동 번영을 위한 충청권 교육혁신 네트워크 운영 상반기 추진 현황 및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충청권 교육의 방향 등을 협의하였다.

이번 회의의 결과로 2021년 충청권 교육청 공동으로 7월중 「충청권 혁신학교 교사 공동 워크숍」과 「충청권 혁신고등학교 한마당」을 개최한다. 그리고, 「충청권교육청 혁신교육담당자 학습공동체」에서 연 4회에 걸쳐 '미래교육'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가지며, 그 외에도 「충청권 교원 연수혁신협의회」를 통해 고교학점제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혁신교육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을 위한 미래교육」을 주제로 한상훈 전(前) 서전고 교장의 발표 내용을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 교육' 및 '생태 전환 교육'을 미래교육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교육청의 조직과 현장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상상과 도전으로 미래 삶을 적극적으로 그려가는 아이들을 기르는 충청권 혁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교육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과제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혁신교육에 대한 충청권의 공유와 소통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 충청남도, 미래산업 이끌 스타기업과 소통의 장 마련

## 24일 충남 스타기업 포럼·지정서 수여식...기업·기관 간 교류 다져

충남도가 지역 미래산업을 선도할 충남 스타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24일 천안에서 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 '2021년 충남지역 스타기업 CEO 포럼 및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이응기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스타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지정서 수여식, 우수사례 발표, 충남 스타기업 기업 홍보(IR)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선 올해 선정한 신규 스타기업 15개사에 스타기업 지정서를 수여했으며,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 중인 기존 선정 기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 기존 스타기업과 신규 스타기업 간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 시간도 가졌다.

충남 스타기업은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등 공통 기준과 매출 증가율, 수출 비중, 고용 증가율 등 지역

특성화 기준을 만족하는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 기업 역량, 고용 창출 능력, 지역사회 파급 효과 등이 큰 기업을 선정해 전용 지원 프로그램과 차년도 연구 개발 과제 지원 등 지원한다.

2018년부터 매년 15개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왔으며, 올해 선정한 15개사를 포함해 현재 총 60개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 정책을 통해 선순환 지역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규제 완화,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 확대, 도로·철도·항만 등 기반 확충, 각종 포상·시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문화, 청년 일자리, 동반성장 등 더 좋은 기업 만들기에 힘써 주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노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서해선 케이티엑스(KTX) 서울 직결 등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열

린 만큼 그 혜택이 기업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도정과 지역이 함께 응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 스타기업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45개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7.5% 증가한 7000억 원에 달해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김원호기자



# 충북도, 세계마약퇴치의 날 캠페인 실시

마약없는 건강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요!

충북도는 6. 26일 제35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하여 25일(14시) 청주시 성안길 일원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성종훈 부분부장)가 참여했으며, "마약없는 건강한 사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캠페인에서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폐해 ▲올바른 약 복용방법 ▲코로나19백신 접종에 따른 아세트아미노펜 구입복용방법 등에 대한 전문약사의 상담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도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홍보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아산시, 2021년 제2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회' 회의 개최

아산시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23일 2021년 제2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2021년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및 상반기 아동학대 고위험아동 대상 합동점검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시에서 진행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민간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e행복아동지원 사업을 비롯해 마을단위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을 위한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발대식,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한 아동학대예방 홍보캠페인 KF94(Kid's Future 9)와 4량해오)와 아동학대 STOP & HELP 챌린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고분자 여성가족과장은 "정보연계협의체를 통하여 우리 시의 아동보호 업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며 "정보연계협의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자들 간에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정보연계협의체는 지난해 10월 아산시, 아산경찰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후 아동학대 조사 업무 공공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기 및 수시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현안 사업을 논의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최재은기자



# 대구 울배역 그랜드원

# 대구에서 받은 사랑, 대구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 김기혁 (주)나비디앤씨 대표,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184호 회원가입

김기혁 (주)나비디앤씨 대표는 24일 오후, 시청별관에서 권영진 대구 시장, 김누리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가졌다. 대구에서 184번째 회원이다.

포부를 가진 김기혁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 회사 직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락 기부, 동절기 연탄 사랑 나눔, 백미 나눔, 사랑의 빵 나눔, 사랑의 비누 나눔 행사 등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주변 지인분들을 통해 아너소사이어티를 접하게 된 김기혁 대표는 대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가입을 결심했다.

1982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김기혁 대표(40세)는 경기도 소재 경북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후 2010년부터 서울에서 부동산 분양 대행 사업을 시작해 2012년경 대구에 정착했다.

김기혁 대표는 “대구에서 사업을 하며 많은 도움을 받으며 성장해 온 만큼 대구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며 보답하고 싶다”며, “앞으로 대구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지속적으로 탄생해 나눔의 물결이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유의 성실함과 위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불철주야 사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초기 10명이었던 직원이 130여 명으로 늘어났고, 분양 대행에서 부동산 개발로 사업을 확장했다.

아너 소 사이 어 티 (Honor Society)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지도층이 사회문제에 관심



을 갖고 나눔운동에 참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1억원 이상 기부 또는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기탁할 경우 회원

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전국에는 2,60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184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 화순군 홍보대사 한한국 세계평화작가, (사)대한노인회 홍보대사로 위촉

화순군 홍보대사이자 국제적인 세계평화작가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한국 중국 연변대학 석좌교수를 23일 오전 2시 용산구 효창동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대한노인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한글로 창작한 세계평화지도(World Peace Map) 작품들이 현재 UN본부 22국가에 소장돼 있고, 남북분단이후 최초로 마지막 북한 국제전선전람관에 한반도 평화지도(우리는 하나)대작이 소장돼 있는 세계최고기록인증 작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국제적인 평화작가를 대한노인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천만 노인시대를 앞두고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 대내외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한한국 세계평화작가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화순군 홍보대사인 한 교수는 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 중국 연변대 예술대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날 한한국 세계평화작가는 “대한노인회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 인간이면 누구나 노인이 된다”며 “노인이 행복한 세상과 어른이 존경받는 세상을 위해 평화작가로서 역할과 활동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그는 공적을 인정받아 국가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헌신·귀감이 된 인물로 선정돼 제4회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민상과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국제평화연론대상, 김포시 문화상(예술) 등 80여 차례 굵직한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영만기자



# 광주광역시, 고 명노근·표정두·정광훈 국민훈장 추서

## 광주광역시,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국민훈장 전수식 개최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에 대한 국민훈장 전수식이 2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렸다.

국민훈장 추서 대상은 고 명노근 전남대학교 교수, 고 표정두 열사, 고 정광훈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3명으로, 이날 전수식에는 포상자 유족들이 참석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다.

여했다.

이용섭 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지도자 고 명노근 교수, 언제나 당당했던 5월 광주의 청년 고 표정두 열사, 일평생을 농민의 벗으로 사셨던 고 정광훈 의장 등 정부포상을 수상하신 분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독재와 불의에 맞서는 불굴의 용기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명노근 교수는 전남대에 재직하며 '민주화운동은 지식인의 중요한 책무'라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평생을 사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정부는 제34주년 6·10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 29명을 선정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한정된 소요 시간을 고려해 정부기념일(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5명만 포상하고 나머지 포상은 6개 광역시·도 지자체장 전수로 진행했다.

고 표정두 열사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내각제 개헌 반대, 장기집권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분신했다.

김덕윤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을 역임한 고 정광훈 의장은 농민운동, 민주화운동으로 세 차례 옥고 치르며 농민의 권익보호와 사회운동가 양성 등 민주화에 기

# 고성군, 고향 사랑 실천한 재부산고성향우에 감사패 전달

## 2021경남고성공릉세계엑스포 홍보활동 및 기간 중 고향 방문 예정

고성군은 6월 23일 오후 2시 고성군청 군수실에서 남다른 고향 사랑을 보여준 재부산고성향우회(회장 김실곤) 회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 청정 고성을 지켜가고 있는 데 대해 향우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엑스포 기간 중 고향 방문 행사를 추진하여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하여 재부산고성향우회에서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패 수상자는 재부산고성향우회 김실곤 회장과 이강석 부회장이며, 두 수상자가 속해있는 재부산고성향우회는 남다른 고향 사랑으로 유명하다.

이어 “앞으로도 고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향우가 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매년 고향 후배들을 위해 고성군 관내 고등학교 5명에게 50만 원씩 총 250만 원의 고우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웃돕기 성품과 동화책 600권 기탁으로 훈훈한 온정의 손길을 베풀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향을 이렇게나 사랑해주시고 고향을 위해 탁도 적극적으로 해 주신 재부산향우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타지에 계신 향우분들에게 자랑스러운 고성 고성이 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강영훈기자



# 미송주가, 경북투어마스터 판매우수업체 시상금 장학금 기탁

## 미송주가 경북농촌체험 관광상품 대표 브랜드인 경북투어



미송주가가 경상북도 체험관광상품 대표 브랜드인 경북투어마스터 주최 판매우수업체선정에서 장려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24일 경산시 장학회에 상금 200만원을 전액 기탁하여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힘분야로 신중하여 전문 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2020 경북투어마스터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지역 특산물을 대추를 이용한 대추막걸리, 대추약주와 함께 다양한 전통주 담기 체험교육을 15회에 걸쳐 총 200여 명에게 실시했다.

경북투어마스터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해 판로까지 개척하는 경북형 대표 관광 브랜드로 경상북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또한 미송주가는 2020년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실시한 국제식음료품평원 주최 품평회에서 국제미각상을 수상하는 등 대추를 이용한 전통주의 맛과 품질을 향상하고 다양한 계층에 홍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 대전소방, 국민행복소방정책 유공자 표창 수여

## 시민체감형 소방서비스 제공과 현장대응 역량강화에 중점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는 24일 14시 시청 19층 본부장실에서 '2020년도 국민행복소방정책' 업무 추진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표창의 주인공은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최정숙 소방장과 대덕소방서 소방행정과 강세덕 소방위로, 최 소방장은 구급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데 기여한 점을, 강 소방위는 대전광역시 자체 소방관서 평가에서 대덕소방서가 최우수 관서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소방청은 매년 '국민행복소방정책'을 통해 대 국민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소방정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모든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대전 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최만식기자



# 광명경찰서 6·25전쟁 참전용사 위문



광명경찰서(서장 최성영)는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인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 박중암 회장의 집을 방문하여 기념품을 전달하고 전쟁 당시 켈로부대원으로서의 활동 및 치열한 전투현장 이야기를 듣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송고한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영 경찰서장은 “참전용사의

박중암 회장은 바쁜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 방문하여 위문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순희기자



### 세계적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 성남에 온다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 기념 그래피티 퍼포먼스 선보여

성남시는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 작가(활동명 Royyal Dog)와 협업해 '하나 된 성남'을 주제로 그래피티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성남시청 내 너른못 광장 맞은 편에 대형 캔버스(7.8m \* 14m)를 마련해 6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6일 화요일까지 작품을 그릴 예정이며 성남시민 누구나 그리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심찬양 작가는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뉴욕, LA,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작업하고 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한복과 외국인 여성이라는 이색적인 조합으로 예술성을 인정받았으며 한복 입은 미셀 오바마 여사, LA 컨테이너 야드에 그려진 '꽃이 피었습

니다', 청와대 사랑채에 남북 정상회담을 그린 '안녕' 등이 대표작이다. 특히 힙합 문화와 한국적 정서를 조화롭게 표현해 그래피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다.

작가는 "매년 한 차례 정도 한국 방문을 하는데 성남시청과 귀한 기회로 만나 좋은 벽에 작업하게 되어 기대하고 있다"며 "저와 시민분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그래피티의 본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심찬양 작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심작가의 그래피티 아트가 탄생 50주년을 맞은 성남시민의 이야기를 담은 큰 선물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성음/기자

### 김해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21 가족사랑음악회 개최

2005년 창단, 활발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해 김해 제1의 지역예술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김해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오는 7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김해시 주최, 김해시립청소년교향악단 주관으로 '2021 가족사랑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가족사랑음악회는 시립청소년교향악단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상급 소프라노 김아름·박연경, 테너 김지호, 바리톤 이태영 4명의 성악가가 참여해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카르멘(Carmen)'의 「투우사의 노래(Chanson du Toreador)」, 「로미오와 줄리엣(Romeo et Juliet)」의 「꿈속에 살고 싶어서(Je veux vivre)」, 「투란도트(Turandot)」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rma)」 등 대중적인 오페라의 주요 대목과 함께 「정신에 살리라」, 「경복궁 타령」과 같은 가곡, 민요 등 무려 17곡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로 무대를 꾸민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공연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준비한 특별 연주회인 만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티켓 예매는 김해문화의전당 홈페이지(gasc.or.kr)에서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좌석제,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입

장료는 성인 3,000원/아동·청소년(6세 이상)은 1,000원이고, 공연 문외는 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무장 010-4400-7038, 문화예술과 055)330-3947 로 하면 된다.

최광용/기자



# 하동군, 2021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 여름시즌 개막

지리산아트팜, '지리산 새 생명의 울림' 주제... 위기의 시대 자연주의 예술 모색

2021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 여름시즌(JIAF 2021 Summer)이 오는 29일 하동군 적량면 소재 지리산아트팜에서 막을 올린다.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바다의 중심에서 자연환경을 예술과 접목해 매년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를 성황리에 개최해온 지리산아트팜은 한국조형예술원 지리산아트팜 캠퍼스를 설립하고 영국의 햄스테드 예술학교와 협약을 통해 새로운 자연주의 예술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한국조형예술원 지리산아트팜 캠퍼스에는 예술학교, 숲속갤러리, 현대미술관, 야외극장이 조성돼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융합아트비즈니스센터 운영, 작가 등 단전 등 시즌별 다양한 자연주의 작가들의 만날 수 있다.

특히 자연주의 거장 영국의 크리스 드루리, 프랑스의 에릭 사마크, 미국의 제임스 설리번, 후주의 케비나조 스미스, 중국의 첸웨이 등의 대지미술과 설치작품이 야외에 전시돼 있어 세계적인 예술 거장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글로벌 아트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다.

지리산아트팜은 '원시(原始) 은유와 새 생명의 울림'이라는 새 시선으로 예술과 자연이 융합돼 조화롭게 하나 되는 현대예술의 '자연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고 있다.

이에 '2021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 여름시즌(JIAF 2021 Summer)' 전시가 '지리산, 새 생명의 울림(irsan, the sound of new life)'을 주제로 29일 오후 2시 개막한다. 하동군 지리산현대미술관과 지리

산아트팜 야외극장에서 7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초대작가 김부건, 김성수, 배달래, 신정균, 한홍수, 홍성훈 등이 참여한다.

김부건 작가의 색조는 다양한 색채 혼합의 과정을 거쳐 단순화된 집약 이미지로 혼색을 통해 단색조의 무채색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선보인다.

한국 전통을 동시대 언어로 표현해오고 있는 김성수 작가는 오방색 숲과 당산(堂山) 풍경을 재활용 패턴과 종이꽃 등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예술로 선보인다.

'신체'라는 물리적 요소와 '회화'라는 시각적 요소를 접목하는 배달래 작가는 퍼포먼스 예술을 통해 매우 극적인 효과를 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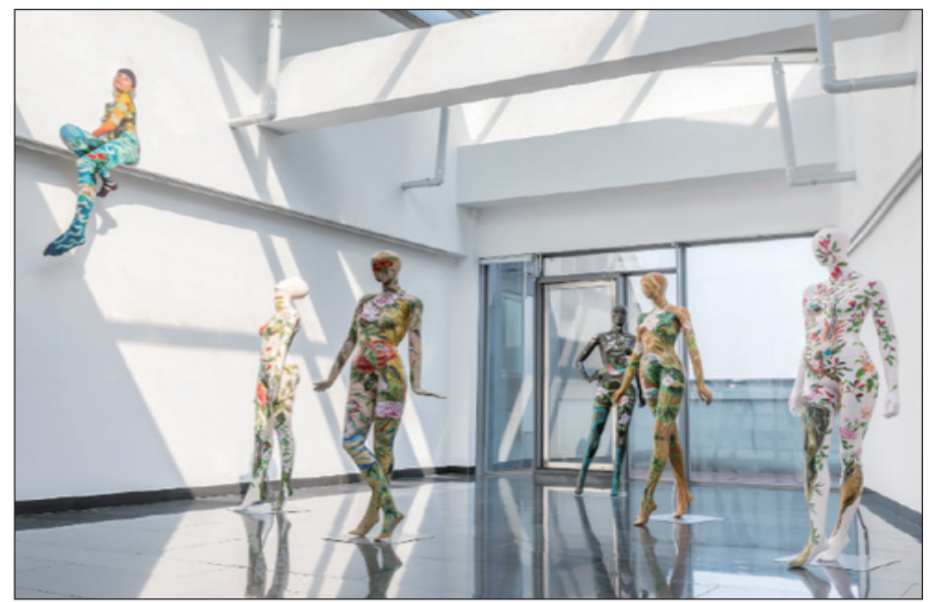
신정균 작가는 낙서하는 여자로 주유천하가 깊고 깊다. 세상과 떠돌며 사람과 이어주던 이 낙서가 '약글'이 됐고, 자유분방한 글자조형으로 솟아올랐다.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한홍수 작가는 유화물감을 한 겹, 한 겹 얇게 층을 만들어 울리는 '겹의 풍경'을 연출한다.

홍성훈 작가는 현대음악과 고전음악이 연주할 때마다 작곡된 지역과 그 나라의 영상이 음악과 함께 하도록 하는 그야말로 눈과 귀와 모든 기능을 가미하도록 한다.

자연 속에서 생명의 탄생은 경이롭고도 광대하며 황홀하다. 이제 자연과 예술이 만나 태초의 영혼으로 정화가 되고 다시 순수한 새 생명에 깃들여 새로운 생명으로 변주가 시작된다.

오르겔이 상상의 캔버스가 되도록 하면 어떻게? 두 대의 빔 프로젝트가 앞뒤로 설치돼 은방사에 투사돼 마치 미디어파사드와 같이 음악과 갤러리의 주제에 따라 미디어아트 영상을 입힌다.



심장생의 모습을 움직이도록 하는 영상 또는 삽화실의 배꽃, 살구꽃, 복사꽃 등의 영상을 입히기도 한다. 현대음악과 고전음악이 연주할 때마다 작곡된 지역과 그 나라의 영상이 음악과 함께 하도록 하는 그야말로 눈과 귀와 모든 기능을 가미하도록 한다.

고흐의 씨뿌리는 농부의 영상을 미디어로 작업해 그에 맞는 시대적 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지는 또 다른 예술을 삽화실오르겔로 이뤄내도록 한다.

한국의 자연 소리를 추구하는 홍성훈 마이스터의 지리산 삽화실오르겔 작품이 생명 분산 지리산에

더 큰 새 생명의 울림을 선사한다. 삽화실오르겔은 전기&전자 장치 등의 현대적 IT 기능을 최대한 이용해 음악 로멘틱의 다이내믹한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세계 최초 공공프로젝트로 작품이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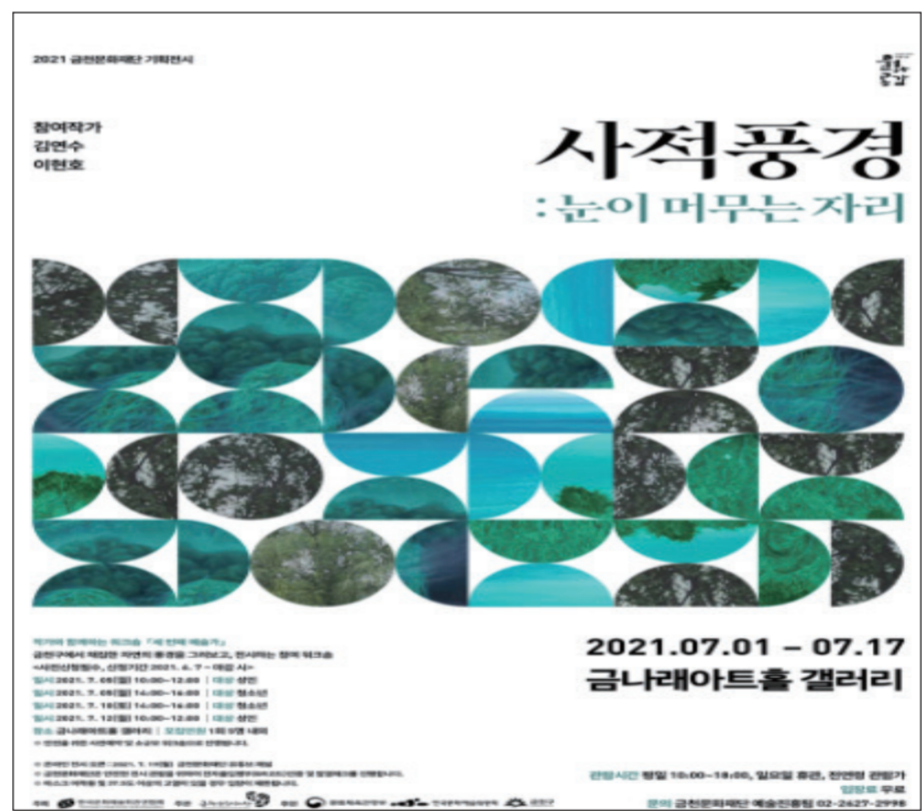
2021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 여름시즌 개막식과 더불어 후원회 조직을 통해 '위드프로젝트 오르겔' 착공식이 진행된다.

위드프로젝트 오르겔은 누구나 참여하는 소액 기부 프로젝트 참여로 새로운 생명의 변화를 이뤄낸다는 의미이다.

김성수 지리산아트팜 학장은 "삽화실오르겔은 가장 다양하고 실험적이고도 흥미롭고 음악과 미술이 혼연이 되는 멀티 예술로서의 실험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 금천문화재단, 기획전시 '사적풍경 : 눈이 머무는 자리' 개최



금천문화재단은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금나래아트홀 갤러리에서 동양화 2인전 '사적풍경 : 눈이 머무는 자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금천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가 주최하는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나눔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예회관 활성화에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적풍경 : 눈이 머무는 자리'는 '풍경'을 자신들의 언어로 재해석한 젊은 작가 이현호, 김연수의 2인전으로, 일상에서 공존하고 있는 자연의 풍경들을 개인적인 경험과 상상력을 통해 포착하고 30여 점의 작품으로 재현했다.

이번 전시는 전 연령관람가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일요일은 휴관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전시 관람이 어려운 관객들을 위해 7월 19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전시를 금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와 함께하는 참여 워크숍 '세 번째 예술가'를 통해 관객들이 전시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동양화 기법으로 풍경화를 그리고 갤러리 내 전시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워크숍은 7월 5일(월)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7월 10일(토) 오후 2시~4시, 7월 12일(월) 오전 10시~12시 총 4회로 진행되며, 회당 5명씩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금천문화재단 예술진흥팀으로 예약신청하면 된다.

이용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여름을 맞아 금나래아트홀 갤러리에 동양화의 깊고 푸른 아름다움을 옮겨보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에서 마주치는 풍경들의 특별함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의 감정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 부산시립극단 제70회 정기공연 '벚꽃동산'

2021년 부산시립극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 4월 연기되었던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의 '벚꽃동산'을 오는 7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제70회 정기공연으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은 그가 마지막으로 창작한 희극이자 드라마로서 정점이라 평가 받는 작품으로 1904년 발표된 이래 뛰어난 연출들에 의해 지금까지도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은 강성우 객원연출은 원작의 흐름을 그대로 살리며 길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몰락해가고 소멸해 가는 삶의 근원적인 부질없음을 보여줌으로써 비극과 희극이 교차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주제 의식을 구현하는데 집중하였다. 또한 등장인물의 캐릭

터 하나하나를 살려 현실에 가까운, 진실하고 신뢰성 있는 성격묘사와 서정적이고 간결한 대사, 대사 사이의 침묵, 다양한 효과음, 치밀하게 계산된 대사의 묘미, 다면적인 무대사용 등 무엇보다 특유의 잔잔하고 애수에 찬 느낌을 전달하고자 한다.

아름답지만 빠르게 사라지는 벚꽃. 내일 아침은 희망적이고 시원한 아침이 되길 바라는 이번 제70회 정기공연 '벚꽃동산'은 7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평일 저녁 7시 30분, 주말 5시에 공연되며 관람료는 R석 20,000원 S석 10,000원으로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전화로 예매가 가능하다. 또한 3일(토) 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남궁영/기자



# 경기도,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게임기업 13개사 모집

## 경기도, 역량있는 게임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 위해 최대 2년 입주지원

경기도가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글로벌게임센터에 입주할 게임 기업을 모집한다. 또,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게임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오피스 서비스도 지원한다.

성남 판교에 위치한 경기글로벌게임센터는 총 40개실 규모로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13개 지원사를 선발한다.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에 선정되면 심사를 통해 최대 2년 간 공간지원을 받는다. 또 ▲게임개발 지원 서비스 ▲법률·세무·회계 분야 1:1컨설팅 ▲모바일 테스트디바이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게임개발 지원 서비스는 ▲AWS ▲알리바바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NHN의 게임베이스 ▲아주큐엠에스의 지에이더 등 게임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입주하는 동안 제공받을 수 있다.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는 신청일 현재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게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제와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자 혹은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도는 또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부터 스마트오피스 지원기업 30개사도 함께 선발한다. 스마트오피스는 공간 지원 개념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주소지로 경기글로벌게임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기업에 선정되면 필요한 경우 게임센터가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공유오피스에서 개발 활동도 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경기글로벌게임센터의 다양한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입주지원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19일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디지털혁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글로벌게임센터는 지난해 입주공간 34개 실을 운영하며 51개 사에게 입주를 지원했다. 특히 경기게임아카데미 출신으로 입주기업이었던 셀렉션은 이번 제14회 새로 운영기 게임오디션에서 '엔스론'으로 우승의 영광을 누렸고 슈퍼엔진, 엔본 등 여러 입주기업이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정근기자



# 경북도, 농식품부 공모사업 전국 최다 선정 쾌거

## '22년 기초생활거점조성 6개 시군 선정, 국비 168억원 확보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2년 기초생활거점조성' 공모에 선정된 전국 22개 시군 중 전국 최다로 포항시(기계면), 경주시(산내면), 김천시(갑천면), 영천시(임고면), 의성군(신평면), 칠곡군(약목면) 6개 시군이 선정되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거점을 조성하여 생활서비스 제공과 역량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부족한 보건·보육·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6개 면 지역에는 내년부터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국비 168억 원 등 총사업비 240억 원을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투입하게 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지난 3월부터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중심으로 박준로 농촌활력과장이 단장을 맡아 공모사업 추진단을 구성, 시군 담당 과장 등과 10여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 집단토론, P.T(구두발표) 등을 통하여 2021년 농촌협약농촌재생뉴딜 국비 공모에 지금까지 전국 최다인 5개 시군이 선정, 국비 1,501억 원 등 총사업비 2,157억 원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으로, 道에서는 7월부터 내년도 공모를 준비 중인 시군에 대한 예비계획 수립 사전 준비회의 개최, 외부 전문가(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등) 조빙 교육과 사업성에 대한 단계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해 성과를 내년까지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농촌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매년 4-5개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10년간 3조 6천억원(국비 1조 3,200억원, 지방비 5,800억원, 연계사업비 1조 7천억원) 정도를 확보·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 선정은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계획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성과"라며 "본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지친 우리 농촌이 다시 활력을 찾아 살기 좋은 경북 농촌 조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북 농촌지역 인재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마을주인으로 구성된 사업 추진주체인 추진위원회 등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을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 인천교통공사, 동반성장 상생결재제도 실효판 점화

인천교통공사는 중소기업 상생결재제도 도입 이후 대금 지급의 첫 실효판을 24일 쏘아 올렸다고 밝혔다.

상생결재제도는 중소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 받고,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 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 제도로, 공사는 지난 7일 중소기업 상생결재제도 도입을 위한 약정을 신한은행과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현재 일부 대기업 및 중앙 공공기관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도입 실적은 매우 부진한 상태이나 공사의 이번 상생결재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하여 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적인 첫 대금 지급의 대상은 인천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임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추진 중인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사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 한류시스템)이다.

공사 정희운 사장은 "이번 인천교통공사의 상생결재제도 도입이 중소기업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상생 발전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내부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한 계약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김종남기자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 분야 중견기업 키운다

## 에너지산업을 산업정책의 핵심지원군으로 육성·지원해달라 건의

경상남도가 24일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에너지산업 분야 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남도와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과가 공동 주최했으며, 풍력, 가스터빈 등 도내 에너지산업 분야 중견기업 6개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중견기업연합회,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참석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설명했으며, 중견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론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산업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산업정책의 핵심 기업군으로 육성·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남도가 주선하여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풍력산업, 가스복합화력발전, 가스터빈 소

재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나 적극적인 사업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향후 도내 에너지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성장이 기대되는 중견기업들이다.

이들은 그간 기업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고 앞으로 도내 에너지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 발굴·추진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자칫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견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확대와 금융지원, 수출지원 등을 요청했으며, 에너지 신산업으로의 사업진출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회의에서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구조가 되려면 중견기업이 계속해서 혁신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신시장과 신기술이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에너지

산업인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에너지산업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 전남도-한국에너지공대, 대형 프로젝트 발굴 공조

## 에너지신산업 분야 수소산업전력반도체 등 기획해 국가 사업화

전라남도도와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신산업 분야인 수소산업, 전력반도체, 첨단소재분석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해 국가 사업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남도는 24일 한국에너지공대 법인 회의실에서 '전남 해상풍력 기반 초대형 그린 수소 산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와 한국에너지공대 교수, 한전 관계자, 장대준 KAIST 교수, 김종선 해양에너지 상무,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 등 수소분야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수소 분야 정책과 방향성, 필요성 등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해상풍력과 연계한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등 수소 활용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발표

와 토론이 이어졌다. 전남도와 한국에너지공대는 미래 에너지대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소산업, 전력반도체, 첨단소재분석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한국에너지공대 5대 중점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수소에너지 인

프라 구축 및 R&D와 관련해 대성공약에 반영할 프로젝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용 전남도 에너지공대지원과장은 "지속해서 회의를 열어 기획안을 마련, 산업부 신규 국비사업에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BIX)지구에 전기차 부품, 소재·장비 제조기업 4개사 유치

## 투자내용 : 전기차용 패스너(볼트), 차량용 알루미늄 소재, 친환경 설비 제조 등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BIX: 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 내 전기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경제청은 지난 24일 오후 4시 8층 회의실에서 영신금속(주), 조양메탈(주), ㈜이화산업, 솔텍, 평택시와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시설 용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기업들의 공장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층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평택 포승(BIX)지구 내 제조시설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적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영신금속공업(주)는 전기차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종업계 최초로 포승(BIX)지구에 전기차용 패스너(볼트) 전용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조양메탈도 30년간의 알루미늄 소재사업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알루미늄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화산업과 솔텍은 각각 친환경 이

산화탄소 저감장치와 선박용 기계제조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포승(BIX)지구의 친환경 전기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도 기대된다.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포승(BIX)지구에 투자 결정을 해주신 4개 기업에 감사하다"며 "입주 기업들이 포승(BIX)지구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BIX)지구는 2020년 12월 사업 준공 이후 자동차부품, 화학, 기계 등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하고 있으며, 경기경제청은 오는 6월 말까지 포승지구의 잔여 산업용지를 수의계약화할 방침이다. 수의계약화가 되면 별도의 분양광고 없이 국내·외 수요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최정근기자





### 수원시 팔달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합동 단속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2일, 수원 남부경찰서와 합동단속반(팔달구청 4명, 수원남부경찰서 7명)을 구성하여 팔달구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22시 이후 운영중단) ▲「음약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주류 판매·보관, 접대부 알선)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2개 업소, 12명을 적발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음약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현재 노래연습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22시 이후(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객 제한(4㎡당 1명)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음약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알선행위가 금지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는 물론 시민 모두의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관내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팔달구는 관내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에 근절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함께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 하남시, 불법주정차 사전안내 서비스

하남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및 전자고지서 '카카오톡'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 사전에 차량이동을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내용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고지되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가입자는 시에서 7월 중 일괄 발송하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수신 후 서비스에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카카오톡 알림톡

으로 안내를 받게 되며, 미수신 시에는 휴대전화 문자로 2차 통보가 이뤄져 문자 수신 누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알람 문자나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시는 추후 카카오톡 알림톡 화면에서 카카오페이 등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도 시행해 납부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동희기자

###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한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 11명 해임·고발 요구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면직사유였던 부패행위 관련 또는 퇴직 전 부서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제한기간(5년) 중 재취업한 2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82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그, N은 공공기관인 엘에이치사육관리, 영주시청에 재취업했고,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에서 면직된 D, R은 부패행위 관련기관인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전(前)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들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24명 중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3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해 지금도 재직 중인 경우 해임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대상자와 제한기관이 확대됐고 연금제한자 전수조회 및 기타소득 포함 취업 현황 파악 등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면서 “대상자에게 퇴직 시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구성해 실태점검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해상·해안국립공원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특정·특별보호 무인도서 무단 출입, 불법 야영 및 취사, 오물투기 등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단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함께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불법 낚시행위, 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 '자연공원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임시출입통제 무인도서 등 총 210곳에서 자연자원의 불법 반출을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불법 행위 단속 건수는 2018년 135건, 2019년 339건, 2020년

4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로 상시적인 단속이 어려운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섬 지역에서 낚시행위에 따른 불법 야영, 취사, 오물투기, 소각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출입금지 도에서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태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용인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

7월1일~8월20일 폐수배출업소 등 210여곳 대상

용인시는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오·폐수의 하천 무단 방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10여 곳이다.

시는 이 기간 내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 시설 및 오염방지 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

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조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폐수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이 많은 처인구는 시와 구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시청 환경과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대구시 북구, The 클린 구암동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민관합동 야간단속 실시



대구 북구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할구역 통장들과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6월 23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민관합동 야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관할구역 통장 등 20여명은 클린 구암동을 만들기 위해 관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취약지역 4곳을 선정하여 4개조가 투입되어 상가 및 원룸, 다가구 지역의 전봇대 주변 그리고 근린공원 주변 등 상습적인 투기지역에 불법투기된 각종 쓰레기를 직접 파봉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 발각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엄격한 과태료 부과를 진행할 예정이다.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운동

의 일환으로 관내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단속과 동시에 주 1회 이상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계도하기 위한 안내문을 별도 제작하여 관할구역 내 주민 및 상가 점주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활동 및 관용차를 이용하여 관내 곳곳을 다니면서 확성기를 통한 주민계도작업도 함께 실시하였다.

김재은 구암동장은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지역이 많이 깨끗해지고 있으나, 이번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계기로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구암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경영기자

### 수원시, "불법 성매매영업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업을 했던 일부 업주가 수원시에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수원시는 “불법 영업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성매매업을 했던 업주들의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폐쇄됐다. 하지만 일부 업주가 지난 14일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협의 없이 강제 폐쇄된 만큼 수원시가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주변에서 화장품·의류 판매업, 다방 등을 하는 사업자들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해 손실을 봤다”며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는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支障物)에 한해 보상하고, 사업 구간

내 거주자에게는 보상 기준에 따른 이주비를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 밖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이주비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주변 도로를 재포장하고,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또 도시가스·전기·통신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업주 모임인 ‘은하수마을’은 지난 4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성매매집결지를 자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시는 성매매집결지의 화재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도로 개설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로는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개설될 예정이다.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 안성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실시

안성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 방류하는 폐수와 재해로 인한 환경오염 사례 등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하루 폐수 배출량 30톤 이상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단속에 앞서 관련 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안성시 환경기술인협의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홍보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인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며, 시는 보관 중인 폐수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 공공수역으로의 폐수 무단 배출, 방치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점검하고, 이밖에도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환경오염사고와 수질오염 행위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 단속으로 폐적한 안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안성시는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168건의 행정처분과 29건의 사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원종균기자



### 상주시, '식중독 제로화 상주시' 위한 음식점 점검

상주시보건소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생선회, 조밥 및 김밥 음식점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여름철 식중독 예방점검은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직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했다.

점검반은 횡집 등 식중독 발생 위험 취약업소 67개소를 대상으로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조리시설 및 조리도구 위생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상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식중독 예방은 식재료의 선택, 조리, 보관과정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며 냉장고를 과신하지 말고 조리된 음식은 가능하면 곧바로 먹는 것이 식중독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예방”이라며 “식중독 제로화 상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에 따른 사적모임제한 완화로 음식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영업주들에게 당부했다.

한반식기자

### 대전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물류창고 특별점검

대전시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관내 물류창고 11곳을 대상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 또한 발생할 수도 있는 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시 물류창고 담당자 및 소방본부와 소방서 특별조사팀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철저히 점검기로 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물류창고 20곳 중 이미 점검한 9곳을 제외한 11곳으로 동구 2곳, 유성구 2

곳, 대덕구 7곳이다.

주요 점검 분야는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점검 체계로 나누어지며,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분야는 화재 사고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실태,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 등을 ▲안전점검 체계 분야는 안전관리 조직 운용 실태, 안전점검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업체의 조치사항을 제출받아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김원호기자

# '슬의생2' 유연석, 99즈에 "신현빈과사권지 한달째" 고백

'슬기로운 의사생활2'가 올제병원 속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다루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24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연출 신원호, 극본 이우정) 2회는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11.8%, 최고 14.3%를 기록했고 전국 가구 기준 평균 10.1%, 최고 12.7%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은 수도권 평균 6.5%, 최고 7.9%, 전국 평균 6.3%, 최고 7.7%를 기록, 2주 연속 수도권 기준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닐슨코리아 제공).

이날 방송에서는 익준(조정석), 정원(유연석), 준완(정경호), 석형(김대명), 송화(전미도)의 의로서 진정성 넘치는 모습은 물론, 병원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시청자들의 몰입을 높였다. 먼저 응급 상황에 놓인 산모에게 현재 상태를 담담하게 말하는 석형의 진지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돌아서서 민하(안은진)에게 산모를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당부하는 심각한 석형의 표정은 긴장감을 더했다.

또한 후배들에게 실력과 성격, 모든 면에서 존경의 대상인 송화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이목을 사로잡았다. 송화를 전공으로 오해한 환자의 보호자는 송화를 불신하며 불만을 표했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전공의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내 송화가 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는 당황하며 공손한 태도를 취했지만 송화는 동요 없이 수술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전공의 선생님들도 명백한 신경외과 의사고 공부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한 사람들입니다. 충분한 의학적 지식도 있고 오히려 저보다 환자에 대해 더 많이 아니까 전공의 선생님들께 물어봐도 잘 알려주실 거예요"라고 말해 선빈(하윤경)은 물론, 시청자들에게도 감동을 안겼다.

한편 각자 힘든 하루를 보낸 석형과 익준의 지친 모습은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먼저 석형의 환자인 응급 산모는 급하게 수술을 했지만 아기를 살릴 수 없어 보는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여기에 익준은 두 딸에게 두 번이나 기증을 받아 간 이식 수술을 했지만 술을 끊지 못하고 다시 상태가 나빠진 환자의 방문이 반갑지 않았다. 익준은 "자식이 간 기증해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딸 둘이 아버지 위해서 목숨 건 거라고요"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환자의 아내는 눈물을, 환자는 거듭 죄송하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각자 힘든 하루를 보낸 석형과 익준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위로를 받으며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정원은 겨울(신현빈)과의 연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익준, 준완, 석형, 송화를 한자리에 모았다. 하지만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시끌벅적 각자 자기 할 말만 하며 정원의 말



을 잘라 폭소를 자아냈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정원은 결국 "나 겨울이 만나. 사권지 한 달 정도 됐어"라고 폭탄선언을 했고, 친구들은 일순 당황했지만 본인 일처럼 기뻐했다. "병원에선 당연히 비밀로 할게. 격정하지 마"라고 먼저 말해준 송화의 모습에서 20년 세월의 우정이 느껴져 시청자들의 마음을 파스하게 했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제병원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2배로 더 깊어진 희로애락을 선보이며 3회를 더욱 기다리게 한다.

여기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관계의 변화는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며 극의 재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는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병원에서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20년지기 친구들의 케미스토리를 담은 드라마다.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

# 채널A 뮤지컬스타 심사위원 민우혁, '정신혼미' 왜? 한도 초과 귀여움+귀호강 커밍순!

차세대 뮤지컬 스타 발굴을 위한 국내 최초&최대의 뮤지컬 배우 경연 대회 채널A '2021 DIMF 뮤지컬스타(이하 '뮤지컬스타')가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심사위원까지 웃고 울게 만드는 감동적인 무대를 예고했다.

26일 방송되는 '뮤지컬스타'에는 지난주에 이어 참가자들의 놀라운 본선 1라운드 무대가 이어진다.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는 참가자, 귀여운 한도 초과인 참가자들의 칼 군무 등 심사위원들도 어깨춤을 추게 만드는 무대의 모습이 예고돼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심사위원 최정원은 "내가 이렇게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며 참가자들의 무대를 현장에서 함께하는 것에 감사해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심사위원 마이클

리는 진심을 가득 담은 조연을 참가자에게 남겨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민우혁은 다채로운 무대에 정신이 혼미해진 모습을 보였다. 스페셜 심사위원인 김형목도 한 무대를 본 후 "결혼은 꼭 해야겠다"며 새로운 다짐을 선보였다. 심사위원들의 이 같은 반응은 과연 어떤 무대와 이야기 가 오았을지 이번 주 본선 1라운드 두 번째 무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심사위원인 최정원x마이클 리x민우혁x장소영 음악감독과 스페셜 심사위원인 김형목까지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놀라운 본선 1라운드 무대는 오는 6월 26일 토요일 밤 11시 10분 채널A '2021 DIMF 뮤지컬스타'에서 공개된다.

현유주기자



# 편스토랑' 이영자 "홍현희 결혼 정말 잘했다" 제이슨 폭풍 칭찬



중 '편스토랑' 먹티스트 이영자는 개그계 아들 강재준, 개그계 사위 제이슨과 함께 고추를 활용한 특별한 맛집을 방문한다.

이날 공개된 VCR에서는 베일에 감춰진 장신의 훈남이 예쁜 꽃다발을 든 채 이영자를 기다렸다. 이에 '편스토랑' 식구들은 흑시 이영자가 소개팅을 하는 것인지 기대하며 지켜봤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가운데 공개된 훈남의 정체는 이영자가 아끼는 후배 개그우먼 홍현희의 남편 제이슨이었다. 이어 끊임없이 '편스토랑' 고정을 노리는 개그맨 강재준도 합류해 포복절도 웃음을 예고했다.

이영자는 제이슨과 강재준을 "개그계 사위들"이라고 소개했다. 제이슨은 개그우먼 홍현희, 강재준은 개그우먼 이은형의 남편이기 때문. 고추처럼 매운 맛 개그우먼들의 남편인 만큼, 대결 주제인 '고추'와 딱 맞는다는 이영자의 멘트에 '편스토랑'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됐다는 전언이다.

이어 '개사위' 제이슨과 강재준의 이영자 마음 사로잡기 경쟁전이 시작됐다. 제이슨은 이영자의 취향을 저격하는 꽃다발로 만나자마자 이영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영자가 맘을 흘리자 바로 손수건을 내미는가 하면 손수건을 들고 서 있기를 자처했다. 또 "내가 개그계의 장모님이 된 기분"이라는 이영자의 말에 "장모님 아니고 누나"라고 센스 있게 정정해 이영자를 흡족하게 했다. 이영자는 "홍현희가 왜 반했는지 알겠다. 결혼 정말 잘했다"라며 폭풍 칭찬을 쏟아냈다고 한다.

반면 제이슨이 눈에 띄게 활약하며 이영자의 마음을 흡치자 강재준은 조조함을 감추지 못해 큰 웃음을 줬다. 특유의 억울미가 폭발한 것. 급기야 이영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 마음이 앞선 강재준은 무리한 액션으로 이영자에게 구박을 받아 또 한 번 큰 웃음을 줬다.

과연 이영자도 극찬한 제이슨의 폭풍 매너는 어떤 것일지, 억울할수록 큰 웃음을 주는 강재준의 무리수는 무엇이었을지, 이영자의 마음은 돌종 누구에게로 향했는지 이 모든 것은 6월 25일 금요일 밤 9시 40분 방송되는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공개된다.

전순희기자

# tvN '간 떨어지는 동거' 강하나-김도완, '머리쓰담' 심쿵 첫 스킨십 포착 로맨스 기운UP

tvN '간 떨어지는 동거' 강하나-김도완의 첫 스킨십이 포착됐다.

'간 떨어지는 동거'(이하 '간동거')(연출 남성우/극본 백선우, 최보림/제작 스튜디오드래곤, JTBC 스튜디오)는 999살 구미호 여르신 신우여와 콜네나는 99년생 요즘 인간 이담이 구술로 인해 얼떨결에 한집살이를 하며 펼치는 비인간적 로맨틱 코미디.

극중 양혜선(강하나 분)과 도재진(김도완 분)의 사이에서 핑크빛 기류가 형성되며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덕거리게 만들고 있다. 재진은 혜선을 위해 관용어 책을 선물하고,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 심란한 혜선에게 다가가 미소를 터트리게 하는 등 재진의 계산 없는 순수함이 혜선의 마음에 침투하면서 향후 두 사람의 로맨스에 기대를 증폭시킨 상황.

그런 가운데 혜선과 재진의 첫 스킨십이 포착돼 관심을 높인다. 재진은 혜선의 머리를 쓰다듬는 다정 다감한 손길로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덕거리게 한다. 감작스러운 재진의 스킨십에 혜선이 깜짝 놀란 모습. 이어 양 볼에 홍조를 띤 채 얼어 붙은 혜선과 해맑은 웃음을 보이는 재진의 투사이 보는 이들의 광대를 실룩거리게 한다.

한편 앞서 혜선은 "너는 엄청 예쁘니까", "너 같은 여신이란 파트너가 됐으니까"라는 재진의 감박이 없는 칭찬 세례에 얼굴을 붉히는 등 뜻하지 않게 조련(?)을 당해왔던 바. 오늘(24일) 방송에서는 재진의 또 어떤 순수한 돌직구가 혜선의 마음을 일렁이게 할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간동거' 제작진 측은 "혜선이 재진에게 점차 빠져들기 시작하며 두 사람의 로맨스가 진전 될 예정이다. 우여와 답이와는 또 다른 매력력을 지닌 혜선과 재진의 로맨스가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것이니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tvN '간 떨어지는 동거' 10회는 오늘(24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 화제성 증명..주인공들이 밝힌 '마인' 종영 소감

마지막으로 치달음수록 더욱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마인'에서 배우들의 종영 소감을 공개했다.

매회 심장 졸깃한 전개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tvN 토일드라마 '마인(Mine)'(백미경 극본, 이나정 연출)은 리서치 전문회사 한국갤럽의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6월 조사에서 총순위 4위, 드라마 부문 1위를 차지해 화제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번 주 대망의 결말만을 앞둔 가운데 '마인'을 이끈 이보영(서희수 역), 김서현(정서현 역), 이현욱(한지용 역), 옥자연(강자경/이혜진 역), 차학연(한수혁 역), 정이서(김유연 역), 박혁권(한진호 역), 박원숙(양순혜 역)까지 여덟 주역들이 아쉬운 끝인사를 전했다.

먼저 가족과의 행복한 삶이 거저된 평화임을 알고 스스로의 '마인'을 지키기 위해 나선 서희수 역을 탁월하게 소화한 이보영은 "겨울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날 때가 다가왔다. 굉장히 아쉽고 희수를 만나고 정말 좋은 감독님과 스태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현장 나오는 게 너무 행복했다"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그녀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했고 '마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고했다.

이어 화려한 상류층의 삶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것은 물론 틀 안에 갇힌 자신의 사고방식을 깨내며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정서현을 보여준 김서현은 "많은 배우들과 제작진의 노고가 있었기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4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 었다"면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더불어 "정서현은 결국 효원(가) 안에서 '마인'을 분명 찾는다. 마지막까지 잘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깨알 관련 포인트를 짚어주기도 했다.

한지용을 통해 선과 악을 넘나드는 입체적인 연기력을 펼친 이현욱은 "한 지용이라는 인물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하다.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드라마 '마인'이 재미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인사를 보냈다. 미스터리한 튜터 강자경과 한하준(정현준 분) 친모 이혜진을 만나며 긴장감을 부여한 옥자연은 "많이 배우고 느꼈다. 함께 한 모든 제작진, 배우분들,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고마움을 표했다.

외로운 재벌 3세 도련님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난 한수혁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 뛰게 했던 차학연은 "수혁이가 자신만의 '마인'을 찾았듯 저 역시 '마인'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들을 잊지 않고, 배우로서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리겠다"는 당찬 포부도 한 번 미소 짓게 했다. 한수혁의 삶을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선배님들과 감독님, 스태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했고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그 무엇보다도 비할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을 얻었다"며 진솔하게 고백, 정한 감동을 안겨줬다.

'마인'에 없어서는 안 될 신 스타일로 활약한 박혁권은 "진호가 비록 분위기 파악은 못해도 혼자 해맞아서 캐릭터를 연기하는 저는 즐거웠다"고 귀여운 비하인드를 털어냈다. 여기에 절없는 재벌가 왕 사모와 혼연일체된 내공 깊은 연기를 선보인 박원숙은 "오랜만에 실력 있는 후배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제가 소리 지르고 액션이 강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즐거운 작업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처럼 배우들의 눈부신 열연으로 '마인'의 완성도는 한층 더 완벽해졌다. 결말만을 남겨둔 '마인'에서 또 어떤 기공할만한 명장면들이 탄생될지 기대감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 아직 풀리지 않은 카덴차 살인 사건을 향한 시청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편, 카덴차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거짓 속 진짜 진실은 무엇일지 더욱 궁금해 하는 tvN 토일드라마 '마인(Mine)' 15회는 28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 [BC카드-한경레이디스컵 2021 1R]'디펜딩 챔피언' 김지영, BC카드 한경컵 첫날 1타차 3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BC카드 한경 레이디스컵 대회에서 지난해 우승자인 '디펜딩 챔피언' 김지영(25세, 김지영2) 선수가 첫날 공동 3위로 패조의 출발을 보였다.

김지영은 경기도 포천시 포천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로 3언더파를 쳤다.

4언더파 공동 선두인 손주희(25세)와 홍정민(19세)에 1타 뒤진 공동 3위에 올랐다.

김지영은 지난해 이 대회 마지막 날 5언더파를 몰아친 끝에 진출한 연장전에서 끝내기 6미터 이글 퍼트를 잡아넣어 개인 통산 2승을 달성했다.

타이틀 방어전 첫날 기분 좋게 출발한 김지영은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을 더 크게 느끼고 싶다. 일단 1~3라운드는 조심스럽게 공략하고 4라운드에서 승부를 걸겠다"고 전략을

밝혔다.

신인 손주희와 홍정민이 나란히 4언더파를 쳐 공동 선두에 올랐다.

손주희는 2019시즌 KLPGA투어 시드를 뺏지만 그 해에는 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지난해에는 7차례 대회밖에 출전하지 않아 신인 신분이 이번 시즌을 맞는 '3년 차 신인'이다.

현재 신인상 포인트에서 4위를 달리고 있고, 올 시즌 최고 성적은 이달 초 롯데오픈에서 기록한 4위다.

지난해 KLPGA 3부 점프투어 사상 최초로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유망주 홍정민은 버디 5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신인 돌풍을 예고했다.

2년 차 기대주 김유빈과 현세린, 신인 김재희 등이 김지영과 함께 공동 3위에 포진했고, 시즌 첫 승을 노리는 최혜진이 첫날 2언더파 공동 8위에 오르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



비를 갖쳤다.

최혜진은 2018년 이 대회 우승자다.

상금 랭킹 2위 박현경은 이븐파를 적어냈고, 상금 랭킹 3위 장하나는 2오버파에 그쳤다.

최고 권위 메이저대회 한국여자오픈을 제패하는 등 올 시즌 벌써 5승

을 거두며 다승과 대상 포인트, 상금 랭킹, 평균타수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민지는 휴식을 위해 이번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총상금 7억 원, 우승 상금 1억 2천 6백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4라운드로 열린다.

전소희/기자

## 안산시 역도요정 박혜정 선수, 한국주니어 신기록 세워

최근 대회서 한국주니어신기록 수립하는 등 금메달 3개 내걸어

'포스트 장미란'으로 불리며 한국 여자 역도 기대주로 꼽히는 안산공고 소속 박혜정 선수가 한국주니어 신기록을 새로 쓰는 등 안산시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박혜정 선수는 지난 18일부터 경남 고성에서 진행된 중인 '제35회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 여고부 87kg 이상 급에 출전해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인상 3차 시기에서 123kg, 용상 3차 시기에서 163kg을 들어 올리며 합계 286kg으로 자신이 보유한 한국주니어 신기록(기존 281kg)을 재차 갈아치웠다.

이번에 박혜정 선수가 세운 기록 중 용상 163kg과 합계부문 286kg은 한국신기록 165kg과 295kg에서 불과 2kg과 9kg 차이로, 충분한 훈련이 뒷받침된다면 조만간 한국신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모으고 있다.

차세대 유망주로 꼽히는 박 선수는 작년 7월 제31회 전국중등여자역도경기대회를 시작으로 8월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학생역도경기대회, 9월 제34회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 10월 제79회 문곡서상전배 역도경기대회, 11월 제11회 전국유소년역도선수권대회 등 작년에 열린 모든 대회 여자 고등부 +87kg급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하는 기록을 세웠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국 대회에서 안산시 위상을 높이는 박혜정 선수가 자랑스럽다"며 "박혜정 선수를 비롯한 체육 꿈나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정읍시, '2021 단오장사씨름대회' 우수 선수·지도자에 포상금 전달

준우승 2명, 3위 1명 등 순위권 최다 선수 배출...포상금 1,310만원 전달



정읍시는 24일 '2021 예전 단오장사씨름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풍미인씨름단에 포상금 1,31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단풍미인씨름단 김시영 감독과 조병신 코치, 서남근 선수(백동급 1품), 배경진 선수(금강급 1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단풍미인씨름단은 체계적이고 과

학적인 훈련으로 각종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명실상부한 씨름의 명가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1품(2위) 2명, 2품(3위) 1명을 배출하며, 18개 팀의 씨름단 중 2품 이내 최다 선수를 배출했다.

이를 통해 정향누리 정읍시 홍보와 스포츠 도시로서 정읍의 위상을 대

외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의 오향(人香·聲香·酒香·味香·花香)을 전국에 널리 알린 씨름단원들에게 감사하며 정읍시민의 염원을 담아 창단 첫 장사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시영 감독은 "민속씨름 4대 대회 중 하나인 단오장사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어 기쁘다"며 "열심히 훈련에 매진해준 선수들과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내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제58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초동부부터 일반부까지 약 1,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되며, KBS N Sports와 유튜브 채널 '살바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최하은/기자

## 여자 아시안컵 예선, 우즈베크-몽골과 한 조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예선에서 한국이 우즈베키스탄, 몽골과 한 조에 속했다.

24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AFC 하우스에서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예선 조 추첨식이 진행됐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몽골과 함께 E조에 편성됐다.

28개 팀이 참가하는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예선은 9월 1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각 조마다 주최국이 다르다. 한국이 속한 E조의 예선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다. A조부터 H조까지 총 8개 조는 조별리그를 통해 순위를 가리며, 1위를 차지한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A, B, C, D조는 4개 팀, E, F, G, H조는 3개 팀으로 구성됐다.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본선은 내년 1월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8 AFC 여자 아시안컵 본선에서 1, 2, 3위를 차지했던 일본, 호주, 중국과 개최국 인도는 본선에 직행했다. 한국은 2018년 당시 5위를 차지해 예선을 거쳐야 한다. AFC 여자 아시안컵 본선은 이듬해 열리는 FIFA 여자 월드컵의 예선을 겸한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국가대표팀은 이달 초 FIFA 매치데이 기간을 활용해 울산에서 일주일간의 소집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여자 국가대표팀은 지난 4월 도쿄 올림픽 최종예선 플레이오프에서 중국에 석패하며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으나, 벨 감독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며 아시안컵에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현유주/기자



## 육일 노영훈 "K5, 막상 해보니 만만치 않다"

"솔직히 K5리그는 쉬울 줄 알고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만만치 않다."

20일 오전 대전 안영동축구장 1구장에서 열린 2021 K5 대전권역(대전, 충남, 세종) 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눈에 띄는 발제간과 스피드를 지닌 선수를 만났다. 세종육일FC(이하 육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의 한 지역 이름)의 노영훈이다. 이날 노영훈은 충남천안시천안쌍용(이하 쌍용)을 상대로 5골을 터트리며 9-3 대승을 이끌었다.

노영훈은 전반 35분 만에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측면에서 빠른 돌파에 이은 간결한 터치를 선보이며 쌍용 수비진을 뒤흔들었다. 세 번째 골 장면에서는 드리블로 상대 골키퍼마저 제친 뒤 골을 성공시켰다. 전반 37분 네 번째 골을 터트리며 노영훈의 활약은 계속됐고, 후반 9분 한 골을 더 넣은 뒤 후반 25분 교체 아웃됐다.

우석대를 졸업해 전주시민축구단(당시 K3리그, 현재 K4리그)에서 활약한 바 있는 노영훈은 지난해 5월부터 육일에서 뛰며 선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솔직히 K5리그는 쉬울 줄 알고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선수 출신인 분들이 많아 결코 만만치 않다. 선수로 복귀하기 전 몸을 끌어올리기에 좋은 리그

인 것 같다"고 밝혔다.

노영훈은 "아는 선배들이 나와서 같이 운동하자고 해서 육일에 들어오게 됐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아 계속 하게 됐다"며 "(전남) 선수로 뛴 때보다 조금 마음 편히 축구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부담감 없이 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말했다.

편안한 마음으로 K5리그에 임하고 있다는 노영훈은 자연스레 경쟁도 즐기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노영훈은 쌍용 박수빈과 개인득점 1위 자리를 놓고 실시간 경쟁을 펼쳤다. 노영훈이 골 잔치를 벌이며 쫓아갔지만 박수빈 또한 두 골을 추가하며 달아났다. 3경기를 치른 현재 박수빈이 10골로 개인득점 1위, 노영훈이 9골로 개인득점 2위다.

노영훈 "기록에 신경 쓰지는 않는다. 열심히 뛰다보니 기회가 왔고 집중해서 하다 보니 골을 많이 넣게 됐다"며 겸손해했다. 그는 "(박)수빈이란 친구사이다. 수빈이가 1위를 했으면 좋겠다"며 웃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볼 것"이라며 승부욕을 보이기도 했다.

26세인 노영훈은 K5리그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시 발돋움하려한다. 그는 "몸을 잘 만들어서 좋은 팀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계속해서 높은 리그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라며 다부진 모습을 보였다.

최만식/기자

## 안양시 체육회 박귀중 회장, FC안양 선수단 격려 방문

FC안양은 안양시 체육회가 6월 22일 FC안양 선수단을 격려차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안양시 체육회 박귀중 회장을 비롯한 안양시 체육회 임직원들이 FC안양과 가톨릭관동대의 연습경기가 펼쳐진 비산체육공원을 방문해 FC안양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안양시 체육회 박귀중 회장은 FC안양 이우형 감독과 주장 주현우를 비롯한 FC안양 선수들에게 훈련 지원 등을 약속했다.

박귀중 회장은 "코로나19의 학

산으로 위축된 경기 환경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으로 선전 중인 선수 여러분을 만나 기쁘다"며, "그 어느 때보다 시즌 초반 우리 선수들의 활약상이 돋보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지난 20일(일)에 열렸던 부산과의 경기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남은 시즌 큰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해서 올해는 꼭 승격까지 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FC안양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전남드래곤즈와 리그 18번째 경기를 치른다.

원준균/기자



GROUP A	GROUP B	GROUP C	GROUP D
CHINA	INDONESIA	THAILAND	VIETNAM
INDONESIA	CHINA	VIETNAM	THAILAND
THAILAND	VIETNAM	CHINA	INDONESIA
VIETNAM	THAILAND	INDONESIA	CHINA

## 광주광역시 동구복싱단, 전국대회서 전원 메달 획득 '쾌거'

은3·동1 수확...광주지역 복싱 부흥 견인자 역할 톡톡

광주 동구 복싱단이 지난 4월 창단 이래 첫 금메달 사냥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복싱단 전원 메달을 목에 걸며 '명가 재건'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동구복싱단은 충남 청양 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전국실업복싱선수권 전국대회'에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69kg급 이동진(29) 선수가 64kg급 한영훈(24) 선수는 지난 4월 열린 '제31회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거머쥔 데 이어 나란히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56kg급 이형석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52kg급 최현태 선수도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24년 만에 재창단된 동구복싱단은 출범 1년 만에 전원 메달 획득이라는 성적을 거두며 광주 복싱 부흥의 견

인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업팀 하나 없는 복싱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광주에서 복싱 부흥의 사실로 변모한 데에는 '2006 도하 아시안 게임' 은메달 리스트인 신명훈 감독의 역할이 크다.

신 감독은 "동구복싱단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복싱협회와 광주광역시체육회,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광주 동구청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메달로 희망과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어려웠던 시절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던 광주복싱이 최근 계속되는 승전보로 복싱에 대한 추억소환과 함께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동구복싱팀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몰심양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 보약같은 심포하나

##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  
주말에는 도시를 벗어나 푸른 자연과  
향수 어린 농사 체험 및 문화체험은 어떠신가요?  
푸르른 강과 수려한 산들이 상쾌함을 더하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보약같은  
심포하나,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만나보세요.

